

2022년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보고서

2022. 12.

본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목 차

〈제목 차례〉

제1장 조사개요_1

1. 조사배경	1
2. 조사목적	2
3. 조사개요	2

제2장 조사결과(정량)_5

1. 세종지역 신중년* 현황	5
2.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9
3. 현재 및 퇴직 전 일경험	10
3.1. 주된 직장의 형태	10
3.2. 주된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	13
3.3. 주된 직장에 대한 만족도	15
3.4. 주된 직장의 고용 형태	18
3.5. 주된 직장의 근무시간	19
3.6. 주된 직장의 월평균 임금 수준	20
3.7.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21
4. 퇴직 경험 및 현재 상황	24
4.1. 퇴직 기간	24
4.2.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의 경험	24
4.3. 퇴직 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및 역량 활용에 대한 기대	26
4.4. 재취업·창업 희망 지역 및 이유	28
4.5. 재취업·창업의 목적	30
4.6.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산업	32
4.7.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	34
4.8. 재취업·창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37
4.9. 재취업·창업 정보 습득 경로	39
4.10.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고용 및 근무 형태	41
4.11.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	42
4.12. 재취업·창업의 장애요인	44
4.13. 재취업·창업을 위한 준비	47
4.14. 신중년의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49

5. 직업교육훈련	51
5.1.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	51
5.2.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교육 기관 구분	52
5.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소재 지역	53
5.4.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	54
5.5.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6
5.6. 향후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58
5.7.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한 시기	60
5.8.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이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	60

제3장 조사결과(정성)_65

1. 조사개요	65
2. 조사결과	65

제4장 결 론_71

1. 조사결과 요약	71
2. 시사점	73

[부록] 설문지_77

〈표 차례〉

〈표1-1〉 조사 내용	3
〈표2-1〉 세종지역 신중년 인구 현황(2015, 2022)	5
〈표2-2〉 신중년 고용동향	6
〈표2-3〉 세종지역 구직·취업 현황	6
〈표2-4〉 세종지역 연령대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	8
〈표2-5〉 응답자 현황	9
〈표2-6〉 신중년의 주된 직장	11
〈표2-7〉 주된 직장의 산업 구성(성별, 연령별)	12
〈표2-8〉 주된 직장의 산업 구성(퇴직여부, 지역)	12
〈표2-9〉 신중년의 주된 직장 근속기간	14
〈표2-10〉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15
〈표2-11〉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고용의 안정성)	16
〈표2-12〉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근무환경)	16
〈표2-13〉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일하는 시간)	16
〈표2-14〉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인사체계)	17
〈표2-15〉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복리후생제도)	17
〈표2-16〉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인간관계 및 조직문화)	17
〈표2-17〉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적성 및 흥미와의 일치성)	18
〈표2-18〉 신중년의 주된 직장 고용형태	19
〈표2-19〉 신중년의 주된 직장 근무시간 형태	19
〈표2-20〉 주된 직장의 월평균 임금(세전)	20
〈표2-21〉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성별, 연령별, 퇴직여부)	23
〈표2-22〉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지역, 고용형태)	23
〈표2-23〉 퇴직기간	24
〈표2-24〉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의 경험-퇴직자	25
〈표2-25〉 주된 직장 경력 활용 직업 활용에 대한 기대	27
〈표2-26〉 퇴직 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및 역량의 유용성	28
〈표2-27〉 재취업(창업) 희망 지역	29
〈표2-28〉 재취업(창업) 희망 지역을 선택한 이유	30
〈표2-29〉 재취업(창업)을 하려는 이유(복수응답)	31
〈표2-30〉 재취업 및 창업 시 희망하는 산업	33
〈표2-31〉 재취업 및 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성별, 연령별, 퇴직여부별)	35
〈표2-32〉 재취업 및 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지역별, 주된직장별)	36
〈표2-33〉 재취업·창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성별, 연령별, 학력별)	37
〈표2-34〉 재취업·창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취·창업이유)(복수응답)	38
〈표2-35〉 재취업·창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월평균 소득)(복수응답)	39
〈표2-36〉 재취업 및 창업 정보 습득 경로(성별, 연령별)	40

〈표2-37〉 재취업 및 창업 정보 습득 경로(퇴직여부별, 지역별)	40
〈표2-38〉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근무형태 및 고용형태	42
〈표2-39〉 희망하는 월 평균 임금(세전)	43
〈표2-40〉 재취업(창업) 장애요인	44
〈표2-41〉 재취업시 장애요인(관련 직무능력 부족(자격증 미보유 등))	45
〈표2-42〉 재취업시 장애요인(원하는 일자리에서의 높은 취업 경쟁)	45
〈표2-43〉 재취업시 장애요인(새로운 일(직장) 시작에 대한 두려움 및 적응의 어려움)	45
〈표2-44〉 재취업시 장애요인(가정생활과 일과의 병행)	46
〈표2-45〉 재취업시 장애요인(신중년에게 적합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의 부족)	46
〈표2-46〉 재취업시 장애요인(재취업 정보 수집의 어려움)	46
〈표2-47〉 재취업시 장애요인(이력서 작성, 면접 등 재취업 기술의 부족)	47
〈표2-48〉 재취업·(창업)을 위한 준비(복수 응답)	48
〈표2-49〉 신중년의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50
〈표2-50〉 재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	51
〈표2-51〉 직업교육훈련 받은 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 경험자)	53
〈표2-52〉 훈련기관이 위치한 지역(직업교육훈련 경험자)	54
〈표2-53〉 세종 외 지역 훈련기관 이용 이유	54
〈표2-54〉 직업교육훈련 참여 이유	55
〈표2-55〉 직업교육훈련 개선 필요사항(직업교육훈련 경험자)	56
〈표2-56〉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7
〈표2-57〉 향후 재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58
〈표2-58〉 재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59
〈표2-59〉 신중년의 직업이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적절 시기	60
〈표2-60〉 정부부처 간 연계 시스템 마련	61
〈표2-61〉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61
〈표2-62〉 중장년층의 직업기초능력, 직무기술과 관련된 역량 조사 및 진단	61
〈표2-63〉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62
〈표2-64〉 기업에서 일정비율의 중장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의무화	62
〈표2-65〉 중장년층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62
〈표2-66〉 중장년층의 직업이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63
〈표4-1〉 세종지역 직종별 양성훈련 현황(KECO중분류)	73
〈표4-2〉 직종별 향상훈련 현황(KECO중분류)	74

〈그림 차례〉

[그림2-1] 세종지역 신중년 인구변화(2015, 2022)	5
[그림2-2] 세종지역 구직현황	7
[그림2-3] 세종지역 취업현황	7
[그림2-4] 세종지역 연령대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	8
[그림2-5] 주된 직장의 형태	10
[그림2-6] 주된 직장의 산업 구성	11
[그림2-7] 주된 직장에서의 근속한 기간	13
[그림2-8] 주된 직장에 대한 만족도(만족+매우 만족의 비율)	15
[그림2-9] 신중년의 주된 직장 고용형태	18
[그림2-10]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22
[그림2-11] 성별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22
[그림2-12]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의 경험	25
[그림2-13] 퇴직 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및 역량 활용에 대한 기대	26
[그림2-14] 퇴직 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및 역량의 유용성	27
[그림2-15] 재취업(창업) 희망 지역	28
[그림2-16] 재취업(창업)을 하려는 이유(퇴직 여부)	30
[그림2-17] 재취업(창업)을 하려는 이유(복수응답, 성별)	31
[그림2-18]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산업	32
[그림2-19]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산업(성별)	33
[그림2-20]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성별)	35
[그림2-21] 재취업·창업 정보 습득 경로	39
[그림2-22]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근무형태	41
[그림2-23]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고용 형태	41
[그림2-24] 재취업·창업을 위한 준비(복수응답)	47
[그림2-25] 신중년의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49
[그림2-26] 재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	51
[그림2-27] 직업교육훈련 분야(복수응답)	52
[그림2-28] 훈련기관의 종류(직업교육훈련 경험자)	53
[그림2-29] 직업교육훈련 참여 이유-직업교육훈련 경험자	55
[그림2-30] 직업교육훈련 개선 필요 사항(직업교육훈련 경험자)	56
[그림2-31]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7
[그림2-32] 향후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58
[그림2-33]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59

제1장 조사개요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배경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의 장기화, 디지털·저탄소,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직면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에 의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노동시장에 빠른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핵심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 고령자 은퇴에 따른 숙련 단절 등의 우려 증가

-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욕구와 수요 증가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기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7.8임
 -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욕구도 동반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신중년(5060세대)이 차지하는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중년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신중년 재취업시 하향 취업하는 가능성이 크며, 단순 노무직 하향 취업은 개인의 생산성 저하 및 심리적 위축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신중년의 일자리는 저숙련(단순직)의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반해,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등의 신기술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임

2. 조사목적

- 본 연구는 고령화로 신중년의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년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방안으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또한, 직업능력개발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중년의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 산업구조 및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하여 2022년 2월 18일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 * 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의 수혜 대상이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전 국민의 생애 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됨

3. 조사개요

- (조사대상) 세종지역 신중년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또는 퇴직예정이며 재취업(창업)을 위해 현재 구직활동 중이거나 향후 1년 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재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세종시 거주 만50~69세
 - *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 발표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관계부처합동, 2017)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를 의미함
- (조사기간) 2022년 8월~12월
- (조사방식) 정량조사(설문조사) 및 정성조사(FGI)

□ (조사내용)

〈표1-1〉 조사 내용

조사항목		조사문항
정량조사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연령, 성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원수 ▪ 월평균 가구 총소득,생계 담당
	현재 및 퇴직 전 일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한 기간및 남은 퇴직 기간, 퇴직 후 재취업(창업)경험, 직업 이동 경로, 재취업(창업) 희망지역 및 선택이유, 재취업(창업) 이유 및 희망 산업, 재취업(창업)시 중요 요인, 정보 획득 경로 ▪ 희망 근무 형태및 고용 형태, 희망 임금 ▪ 재취업 장애요인, 현재 준비상태 ▪ 세종시에 희망하는 지원 정책
	직업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분야,교육 기간,기관 유형 ▪ 직업훈련기관 참여지역 및 이유 ▪ 참여 동기,만족도,장애요인 ▪ 향후 참여 의향 및 참여 희망 분야 ▪ 직업교육 훈련의 적절한 시기
정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 신중년의 직업교육훈련 필요성 ▪ 신중년에게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내용 ▪ 세종시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수강 어려움 ▪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제2장 조사결과[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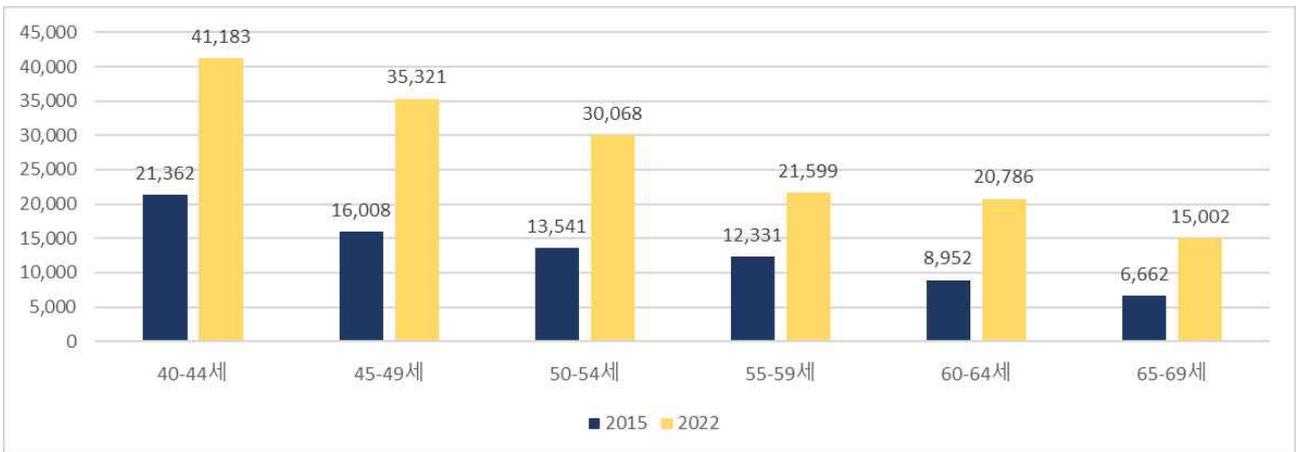
제2장 조사결과(정량)

1. 세종지역 신중년*1) 현황

-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세종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중년 세대 또한 약 2배 이상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음

[그림2-1] 세종지역 신중년 인구변화(2015, 2022)

(단위: 명)



〈표2-1〉 세종지역 신중년 인구 현황(2015, 2022)

(단위: 명, %)

구분	전국					세종				
	2015		2022		증감률	2015		2022		증감률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전 체]	51,529,338	100.0	51,439,038	100.0	-0.2	210,884	100.0	383,591	100.0	81.9
40-44세	4,396,186	8.5	4,026,249	7.8	-8.4	21,362	10.1	41,183	10.7	92.8
45-49세	4,462,807	101.5	4,046,868	100.5	-9.3	16,008	74.9	35,321	85.8	120.6
50-54세	4,289,141	96.1	4,542,072	112.2	5.9	13,541	84.6	30,068	85.1	122.1
55-59세	4,035,650	94.1	4,069,992	89.6	0.9	12,331	91.1	21,599	71.8	75.2
60-64세	2,881,662	71.4	4,218,037	103.6	46.4	8,952	72.6	20,786	96.2	132.2
65-69세	2,191,617	76.1	3,185,502	75.5	45.3	6,662	74.4	15,002	72.2	125.2

1)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 발표된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8.8.)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를 의미함

- 신중년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일하는 신중년 꾸준히 증가함

〈표2-2〉 신중년 고용동향

(단위: 천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신중년	전체	신중년	전체	신중년	전체	신중년	전체	신중년
취업자	26,822	9,451	27,123	9,788	26,904	9,951	27,273	10,262	28,089	10,758
남자	15,372	5,521	15,463	5,643	15,381	5,759	15,548	5,926	15,928	6,169
여자	11,450	3,929	11,660	4,145	11,523	4,192	11,725	4,336	12,161	4,590
실업자	1,073	164	1,063	169	1,108	191	1,037	170	833	113
남자	630	102	627	107	624	108	576	96	447	69
여자	443	62	437	62	484	83	461	74	385	45
비경제활동인구	16,287	1,933	16,318	1,929	16,773	2,005	16,770	1,958	16,339	1,850
남자	5,697	453	5,797	488	6,030	513	6,074	509	5,897	476
여자	10,590	1,480	10,521	1,440	10,743	1,492	10,696	1,449	10,442	1,373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세종지역 구직건수는 총 27,498명이며, 50세 이상의 구직건수는 9,507건으로 총 구직건수의 3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 50세 이상의 구직건수 및 취업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2-3〉 세종지역 구직·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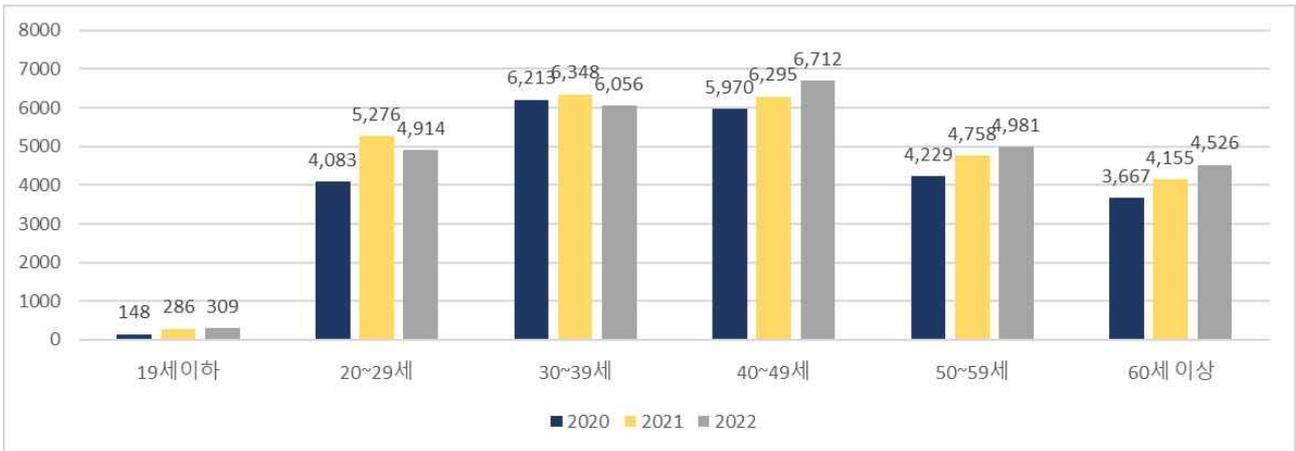
(단위: 건)

	2020			2021			2022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
[전체]	24,310	11,910	49.0	27,118	13,096	48.3	27,498	13,563	49.3
19세이하	148	60	40.5	286	41	14.3	309	47	15.2
20~29세	4,083	1,158	28.4	5,276	1,631	30.9	4,914	1,338	27.2
30~39세	6,213	1,459	23.5	6,348	1,687	26.6	6,056	1,413	23.3
40~49세	5,970	1,740	29.1	6,295	2,025	32.2	6,712	1,954	29.1
50~59세	4,229	4,132	97.7	4,758	3,396	71.4	4,981	2,696	54.1
60세 이상	3,667	3,361	91.7	4,155	4,316	103.9	4,526	6,115	135.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그림2-2] 세종지역 구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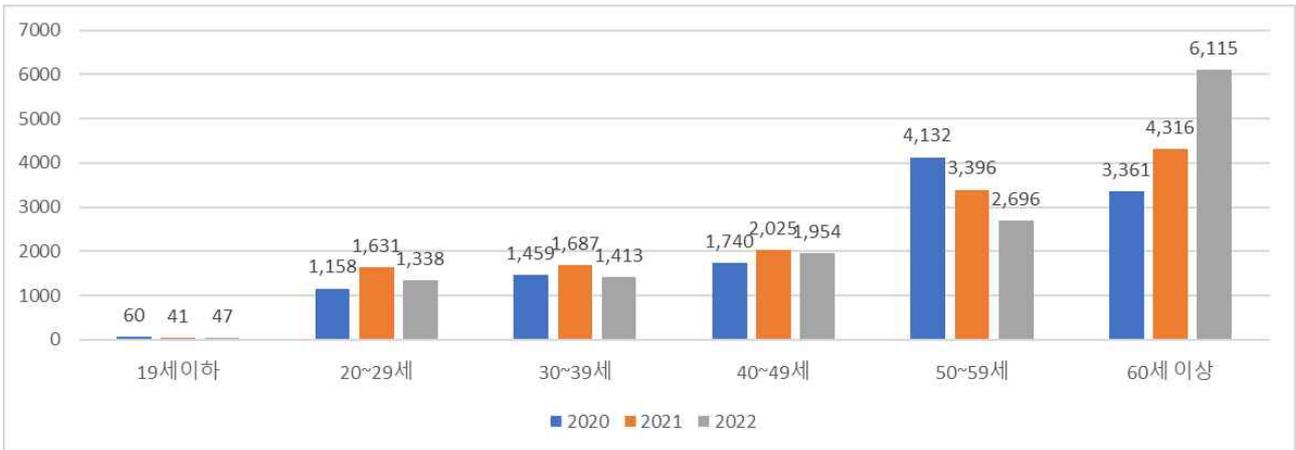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그림2-3] 세종지역 취업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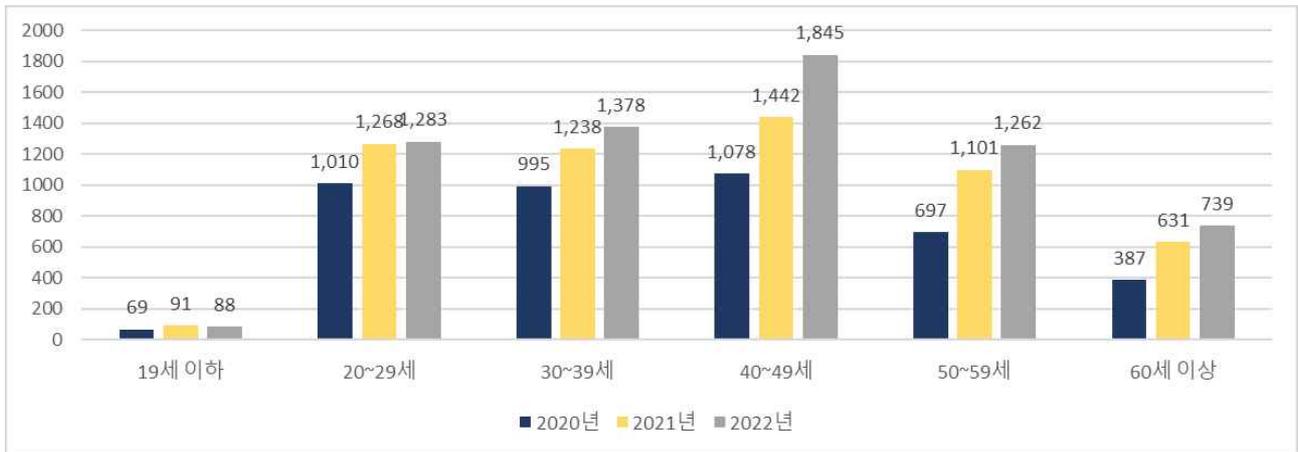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 세종지역 신중년의 국민내일배움카드*2) 발급건수도 최근 3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50세 이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건수는 1,084건이었으며, 2022에는 2,001건의 발급건수를 기록함(2020년 대비 45.8% 증가)

[그림2-4] 세종지역 연령대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표2-4> 세종지역 연령대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4,236	5,771	6,595
19세 이하	69	91	88
20~29세	1,010	1,268	1,283
30~39세	995	1,238	1,378
40~49세	1,078	1,442	1,845
50~59세	697	1,101	1,262
60세 이상	387	631	73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2) 급격한 기술발전이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2.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중 56.4%는 행복도시, 43.6%는 행복도시 외 지역 거주자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만50~55세 미만 응답자 22.1%, 만55~60세 미만 응답자 38.0%, 만60세 이상 응답자 40.0%로 구성

〈표2-5〉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응답자수	구성비
[전 체]		553	100.0
성별	남자	211	38.2
	여자	342	61.8
거주지	행복도시	312	56.4
	행복도시 외	241	43.6
연령대	만50세~만55세 미만	122	22.1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8.0
	만60세 이상	221	40.0
학력수준	고졸이하	278	50.3
	전문대졸 이상	275	49.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17	21.2
	300~400만원 미만	177	32.0
	400~500만원 미만	96	17.4
	500만원 이상	163	29.5
퇴직· 퇴직예정	퇴직	316	57.1
	퇴직예정	237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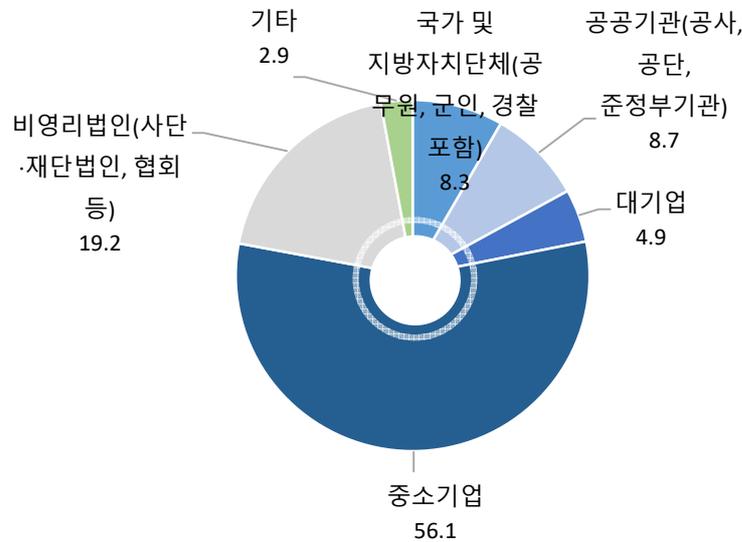
3. 현재 및 퇴직 전 일경험

3.1. 주된 직장의 형태

- 응답자의 56.1%가 중소기업에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상태
- 그 외 비영리법인(19.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8.3%), 공공기관(8.7%)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징이 반영됨

[그림2-5] 주된 직장의 형태

(단위: %)



- 남성 응답자의 11.4%가 주된 직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5.2%는 공공기관, 10.4%는 대기업에서 근무한데 반해, 여성 응답자 중 61.7%는 중소기업, 21.6%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함
- 행복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비율이 높았음

〈표2-6〉 신중년의 주된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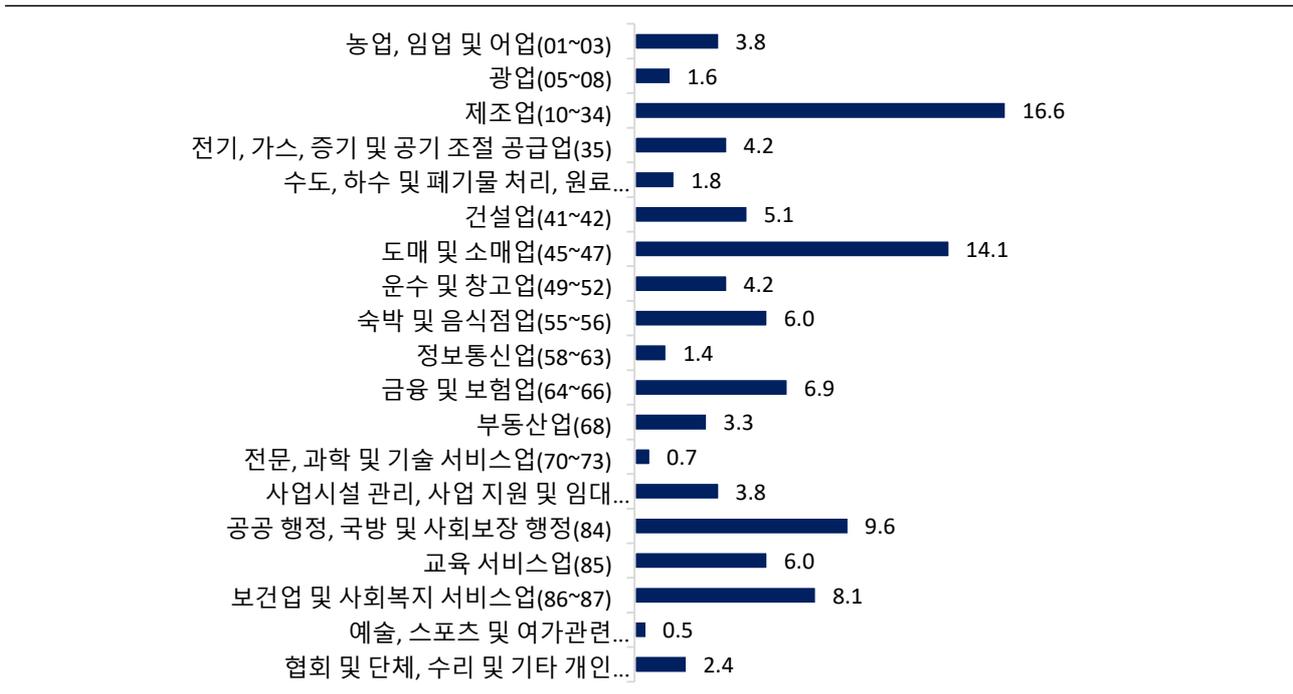
(단위: 명, %)

		응답자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기타
[전 체]		553	8.3	8.7	4.9	56.1	19.2	2.9
성별	남자	211	11.4	15.2	10.4	46.9	15.2	0.9
	여자	342	6.4	4.7	1.5	61.7	21.6	4.1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3	8.2	6.6	70.5	11.5	-
	만55세~만60세 미만	210	9.5	8.6	6.2	56.2	16.2	3.3
	만60세 이상	221	10.0	9.0	2.7	48.0	26.2	4.1
퇴직	퇴직	316	7.3	6.6	2.8	61.4	19.3	2.5
	퇴직예정	237	9.7	11.4	7.6	48.9	19.0	3.4
지역	행복도시	312	312	9.0	9.6	3.2	57.4	17.6
	행복도시 외	241	241	7.5	7.5	7.1	54.4	21.2

□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제조업(16.6%)과 도·소매업(14.1%)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경험이 많았으며, 세종시의 특징상 공공행정 부문에 근무했던 비중도 높게 나타남

[그림2-6] 주된 직장의 산업 구성

(단위: %)



〈표2-7〉 주된 직장의 산업 구성(성별, 연령별)

(단위: 명, %)

	응답자수	성별		연령		
		남자	여자	만50세~ 만55세 미만	만55세~ 만60세 미만	만60세 이상
[전 체]	553	211	342	122	210	221
농업, 임업 및 어업	3.8	3.3	4.1	4.1	0.5	6.8
광업	1.6	3.8	0.3	3.3	1.9	0.5
제조업	16.6	20.9	14	22.1	17.6	12.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2	8.5	1.5	9	3.8	1.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8	1.9	1.8	4.9	1.4	0.5
건설업	5.1	9.5	2.3	6.6	6.2	3.2
도매 및 소매업	14.1	8.1	17.8	13.9	13.8	14.5
운수 및 창고업	4.2	7.1	2.3	3.3	4.3	4.5
숙박 및 음식점업	6	0.5	9.4	1.6	5.2	9
정보통신업	1.4	2.4	0.9	3.3	1	0.9
금융 및 보험업	6.9	6.2	7.3	5.7	7.1	7.2
부동산업	3.3	1.4	4.4	1.6	3.3	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	1.4	0.3	0.8	0.5	0.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3.8	3.8	0.8	4.8	4.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6	14.2	6.7	2.5	11.4	11.8
교육 서비스업	6	4.7	6.7	5.7	4.8	7.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	1.4	12.3	9.8	9	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5	0.5	0.6	0.8	-	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	0.5	3.5	-	3.3	2.7

〈표2-8〉 주된 직장의 산업 구성(퇴직여부, 지역)

(단위: 명, %)

	응답자수	퇴직여부		지역	
		퇴직	퇴직예정	행복도시	행복도시 외
[전 체]	553	316	237	312	241
농업, 임업 및 어업	3.8	4.1	3.4	2.2	5.8
광업	1.6	0.3	3.4	0	3.7
제조업	16.6	13.6	20.7	14.1	19.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2	3.8	4.6	3.2	5.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8	1.9	1.7	1.6	2.1
건설업	5.1	4.4	5.9	5.4	4.6
도매 및 소매업	14.1	17.1	10.1	14.1	14.1
운수 및 창고업	4.2	5.1	3	4.5	3.7
숙박 및 음식점업	6	7.6	3.8	7.7	3.7
정보통신업	1.4	2.2	0.4	1.3	1.7
금융 및 보험업	6.9	7.9	5.5	8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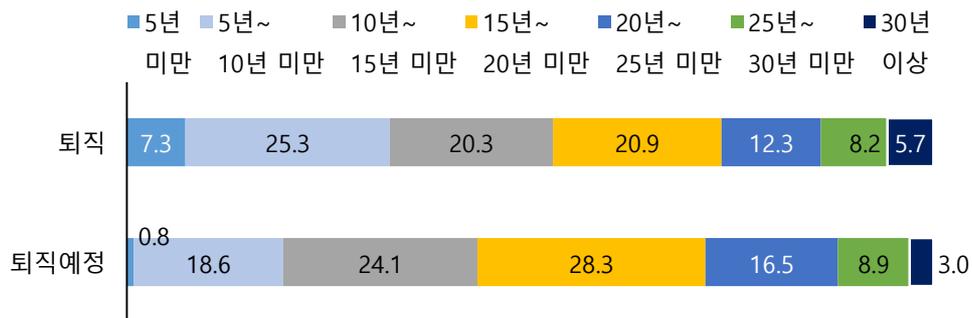
	응답자수	퇴직여부		지역	
		퇴직	퇴직예정	행복도시	행복도시 외
[전 체]	553	316	237	312	241
부동산업	3.3	3.2	3.4	4.2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	0.9	0.4	1	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3.8	3.8	3.8	3.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6	8.2	11.4	11.5	7.1
교육 서비스업	6	6	5.9	6.7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	6	11	6.7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5	0.6	0.4	0.6	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	3.2	1.3	3.2	1.2

3.2. 주된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

- 퇴직자는 주된 직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47.2%이고 71.5%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퇴직예정자는 56.5%가 15년 이상 근속하고 있으며, 63.3%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2-7] 주된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

(단위: %)



〈표2-9〉 신중년의 주된 직장 근속기간

(단위: 명, %)

		응답자수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25년 미만	25년~30년 미만	30년 이상
[전 체]		553	4.5	22.4	21.9	24.1	14.1	8.5	4.5
성별	남자	211	0.5	15.2	19.4	20.9	17.5	16.1	10.4
	여자	342	7.0	26.9	23.4	26.0	12.0	3.8	0.9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4.1	30.3	30.3	17.2	12.3	4.9	0.8
	만55세~만60세 미만	210	4.8	21.4	19.0	25.7	16.7	9.5	2.9
	만60세 이상	221	4.5	19.0	19.9	26.2	12.7	9.5	8.1
퇴직	퇴직	316	7.3	25.3	20.3	20.9	12.3	8.2	5.7
	퇴직예정	237	0.8	18.6	24.1	28.3	16.5	8.9	3.0
지역	행복도시	312	6.1	19.6	21.2	22.8	15.7	8.3	6.4
	행복도시 외	241	2.5	26.1	22.8	25.7	12.0	8.7	2.1

□ 통계청의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만55~64세 20년 이상 근속한 비율은 남자 50.4%, 여자 20.7%로, 세종시 응답자가 전국 평균에 비해 20년 이상 근속한 비율이 적은 편임

〈참고1〉 주된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2022.05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55~64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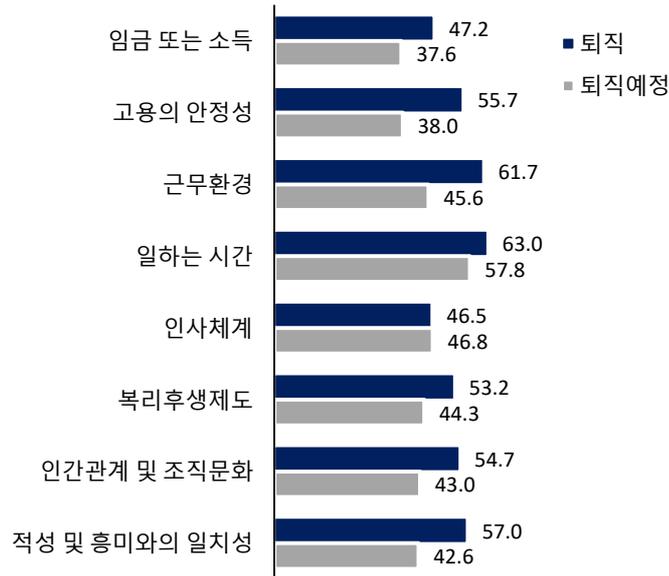
		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30년미만	30년이상
[전 체]		15.0	19.1	30.3	19.2	16.4
성별	남자	8.8	11.8	29.0	26.2	24.2
	여자	21.2	26.5	31.7	12.3	8.4

3.3. 주된 직장에 대한 만족도3)

□ 퇴직자가 퇴직예정자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그림2-8] 주된 직장에 대한 만족도(만족+매우 만족의 비율)

(단위: %)



<표2-10>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단위: 명, %)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7	16.6	39.6	38.7	4.3	3.29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31.1	31.1	32.8	4.1	3.08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15.2	38.6	42.4	3.3	3.33
	만60세 이상	221	0.9	10.0	45.2	38.5	5.4	3.38
퇴직	퇴직	316	-	7.9	44.9	41.5	5.7	3.45
	퇴직예정	237	1.7	28.3	32.5	35.0	2.5	3.08
지역	행복도시	312	0.3	12.2	43.3	39.7	4.5	3.36
	행복도시 외	241	1.2	22.4	34.9	37.3	4.1	3.21

3) 주된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됨(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표2-11〉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고용의 안정성)

(단위: 명, %)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4	9.6	42.0	34.4	13.7	3.52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15.6	47.5	29.5	6.6	3.25
	만55세~만60세 미만	210	-	7.6	43.8	31.9	16.7	3.58
	만60세 이상	221	0.5	8.1	37.1	39.4	14.9	3.60
퇴직	퇴직	316	0.3	6.0	38.0	42.1	13.6	3.63
	퇴직예정	237	0.4	14.3	47.3	24.1	13.9	3.37
지역	행복도시	312	-	8.7	40.4	34.3	16.7	3.59
	행복도시 외	241	0.8	10.8	44.0	34.4	10.0	3.42

〈표2-12〉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근무환경)

(단위: 명, %)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4	6.7	38.2	45.8	9.0	3.56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9.0	41.0	41.0	8.2	3.47
	만55세~만60세 미만	210	-	8.6	39.0	42.9	9.5	3.53
	만60세 이상	221	0.5	3.6	35.7	51.1	9.0	3.65
퇴직	퇴직	316	0.3	5.4	32.6	52.5	9.2	3.65
	퇴직예정	237	0.4	8.4	45.6	36.7	8.9	3.45
지역	행복도시	312	-	7.1	34.6	48.7	9.6	3.61
	행복도시 외	241	0.8	6.2	42.7	41.9	8.3	3.51

〈표2-13〉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일하는 시간)

(단위: 명, %)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2	6.5	32.5	50.6	10.1	3.64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4.1	43.4	45.9	5.7	3.52
	만55세~만60세 미만	210	-	3.8	33.3	53.8	9.0	3.68
	만60세 이상	221	-	10.4	25.8	50.2	13.6	3.67
퇴직	퇴직	316	0.3	6.3	30.4	51.6	11.4	3.67
	퇴직예정	237	-	6.8	35.4	49.4	8.4	3.59
지역	행복도시	312	-	7.4	31.1	51.0	10.6	3.65
	행복도시 외	241	0.4	5.4	34.4	50.2	9.5	3.63

〈표2-14〉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인사체계)

(단위: 명, %)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7	11.0	41.6	39.6	7.1	3.41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1.6	11.5	32.0	47.5	7.4	3.48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9.0	45.2	38.6	6.7	3.42
	만60세 이상	221	0.5	12.7	43.4	36.2	7.2	3.37
퇴직	퇴직	316	1.3	10.8	41.5	38.3	8.2	3.41
	퇴직예정	237	-	11.4	41.8	41.4	5.5	3.41
지역	행복도시	312	0.6	12.5	43.3	37.2	6.4	3.36
	행복도시 외	241	0.8	9.1	39.4	42.7	7.9	3.48

〈표2-15〉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복리후생제도)

(단위: 명, %)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7	10.5	39.4	39.4	9.9	3.47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5.7	41.0	38.5	13.9	3.59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10.0	42.4	38.6	8.6	3.45
	만60세 이상	221	0.9	13.6	35.7	40.7	9.0	3.43
퇴직	퇴직	316	0.6	11.4	34.8	44.3	8.9	3.49
	퇴직예정	237	0.8	9.3	45.6	32.9	11.4	3.45
지역	행복도시	312	0.3	12.5	42.0	36.2	9.0	3.41
	행복도시 외	241	1.2	7.9	36.1	43.6	11.2	3.56

〈표2-16〉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인간관계 및 조직문화)

(단위: 명, %)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4	11.4	38.5	43.0	6.7	3.44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17.2	35.2	32.8	13.9	3.42
	만55세~만60세 미만	210	-	10.5	38.6	45.7	5.2	3.46
	만60세 이상	221	0.5	9.0	40.3	46.2	4.1	3.44
퇴직	퇴직	316	0.6	9.8	34.8	48.1	6.6	3.50
	퇴직예정	237	-	13.5	43.5	36.3	6.8	3.36
지역	행복도시	312	-	11.2	36.9	46.8	5.1	3.46
	행복도시 외	241	0.8	11.6	40.7	38.2	8.7	3.42

〈표2-17〉 신중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적성 및 흥미와의 일치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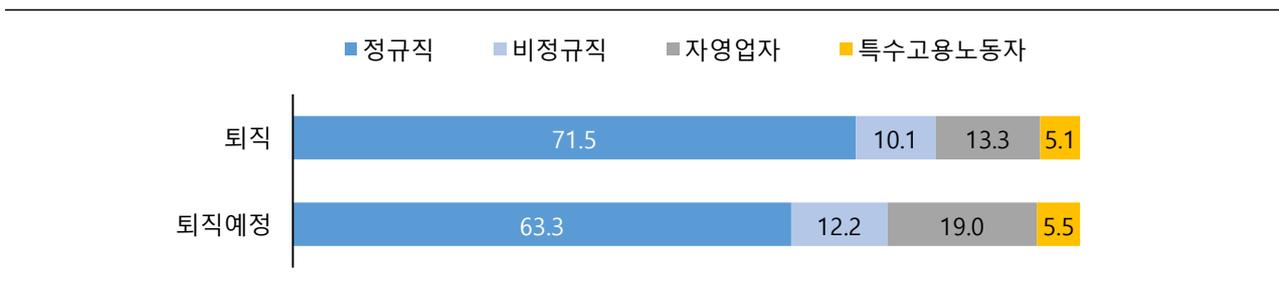
		응답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1.3	6.7	41.2	45.6	5.2	3.47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4.1	13.1	36.1	40.2	6.6	3.32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5.2	45.2	44.8	4.3	3.47
	만60세 이상	221	0.5	4.5	40.3	49.3	5.4	3.55
퇴직	퇴직	316	0.6	5.1	37.3	51.6	5.4	3.56
	퇴직예정	237	2.1	8.9	46.4	37.6	5.1	3.35
지역	행복도시	312	0.3	4.8	42.6	47.8	4.5	3.51
	행복도시 외	241	2.5	9.1	39.4	42.7	6.2	3.41

3.4. 주된 직장의 고용 형태

□ 주된 직장에는 주로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였음

[그림2-9] 신중년의 주된 직장 고용형태

(단위: %)



□ 남성 응답자의 71.1%, 여성 응답자의 66.1%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행복도시 거주자가 행복도시 외 거주자에 비해 정규직으로 근무한 비율이 높았음

○ 행복도시 외 지역 거주자는 행복도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데, 주된 직장의 산업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광업 등에 종사했던 비중이 높기 때문임

〈표2-18〉 신중년의 주된 직장 고용형태

(단위: 명, %)

		응답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 체]		553	68.0	11.0	15.7	5.2
성별	남자	211	71.1	8.5	14.7	5.7
	여자	342	66.1	12.6	16.4	5.0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61.5	10.7	22.1	5.7
	만55세~만60세 미만	210	72.9	10.5	12.4	4.3
	만60세 이상	221	67.0	11.8	15.4	5.9
퇴직	퇴직	316	71.5	10.1	13.3	5.1
	퇴직예정	237	63.3	12.2	19.0	5.5
지역	행복도시	312	71.2	10.3	13.8	4.8
	행복도시 외	241	63.9	12.0	18.3	5.8

3.5. 주된 직장의 근무시간

- 주된 직장에서 근무시간은 84.6%가 전일제 형태로 근무
 -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94.1%가 전일제로 근무한 반면,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한 경우는 36.1%가 시간제로 근무
-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전일제로 근무한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급여 소득자의 비중이 높았던 행복도시 거주자가 행복도시 외 거주자에 비해 전일제 형태로 근무한 비율이 높았음

〈표2-19〉 신중년의 주된 직장 근무시간 형태

(단위: 명, %)

		응답자수	전일제	시간제
[전 체]		553	84.6	15.4
성별	남자	211	79.6	20.4
	여자	342	87.7	12.3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75.4	24.6
	만55세~만60세 미만	210	88.1	11.9
	만60세 이상	221	86.4	13.6
퇴직	퇴직	316	89.9	10.1
	퇴직예정	237	77.6	22.4

		응답자수	전일제	시간제
[전 체]		553	84.6	15.4
지역	행복도시	312	89.4	10.6
	행복도시 외	241	78.4	21.6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376	94.1	5.9
	비정규직	61	63.9	36.1
	자영업자	87	66.7	33.3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29	58.6	41.4

3.6. 주된 직장의 월평균 임금 수준

- 주된 직장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50만원 미만인 수준인 경우가 29.1%로 가장 많았음
 -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57.4%가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미만 수준이었으며, 자영업자로 근무한 경우 300~350만원
 - 퇴직 전 주된 직장이 중소기업이었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했던 경우는 400~4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3%임
 -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에 근무했던 경우가 해당
-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전일제로 근무하는 비중은 높았지만 임금수준은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45.6%로 남성 2.4%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았음.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자영업으로 근무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표2-20〉 주된 직장의 월평균 임금(세전)

(단위: 명, %)

		응답자수	250만원 미만	25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350만원 미만	350만원~400만원 이상	400만원~450만원 미만	45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 체]		553	29.1	24.1	26.0	9.0	6.9	2.5	2.4
성별	남자	211	2.4	17.1	38.9	17.5	13.7	4.7	5.7
	여자	342	45.6	28.4	18.1	3.8	2.6	1.2	0.3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18.9	33.6	34.4	8.2	2.5	2.5	-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1.4	22.9	23.8	10.5	7.6	1.4	2.4
	만60세 이상	221	32.6	19.9	23.5	8.1	8.6	3.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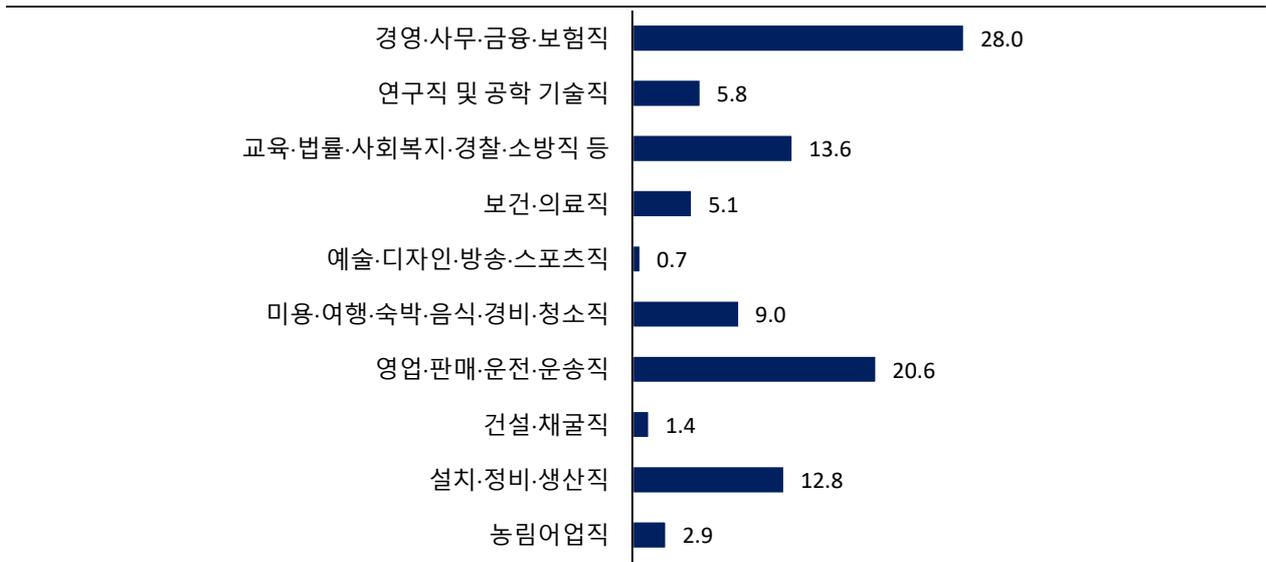
		응답자수	250만원 미만	25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350만원 미만	350만원~400만원 이상	400만원~450만원 미만	45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 체]		553	29.1	24.1	26.0	9.0	6.9	2.5	2.4
퇴직	퇴직	316	39.2	20.6	22.2	6.0	6.0	3.8	2.2
	퇴직예정	237	15.6	28.7	31.2	13.1	8.0	0.8	2.5
지역	행복도시	312	30.8	21.5	23.1	10.9	7.4	3.5	2.9
	행복도시 외	241	27.0	27.4	29.9	6.6	6.2	1.2	1.7
고용 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376	28.7	21.8	21.8	11.7	9.3	3.5	3.2
	비정규직	61	57.4	27.9	14.8	-	-	-	-
	자영업자	87	12.6	33.3	48.3	2.3	2.3	-	1.1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29	24.1	17.2	37.9	13.8	3.4	3.4	-
주된 직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6	13.0	8.7	15.2	13.0	28.3	10.9	10.9
	공공기관	48	8.3	27.1	14.6	14.6	18.8	10.4	6.3
	대기업	27	3.7	14.8	40.7	11.1	22.2	-	7.4
	중소기업	310	35.8	25.5	24.8	9.4	2.6	1.3	0.6
	비영리법인	106	31.1	27.4	35.8	4.7	0.9	-	-

3.7.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28.0%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을, 20.6%는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을 수행
 - 남성 응답자의 14.2%는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을 수행한데 반해,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31.3%가 경영·사무·금융·보험 직무를 수행
 - 여성 응답자 중 24.0%는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을, 13.5%는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남성 응답자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22.7%, 설치·정비·생산직으로 21.3%가 근무하여 성별로 수행한 직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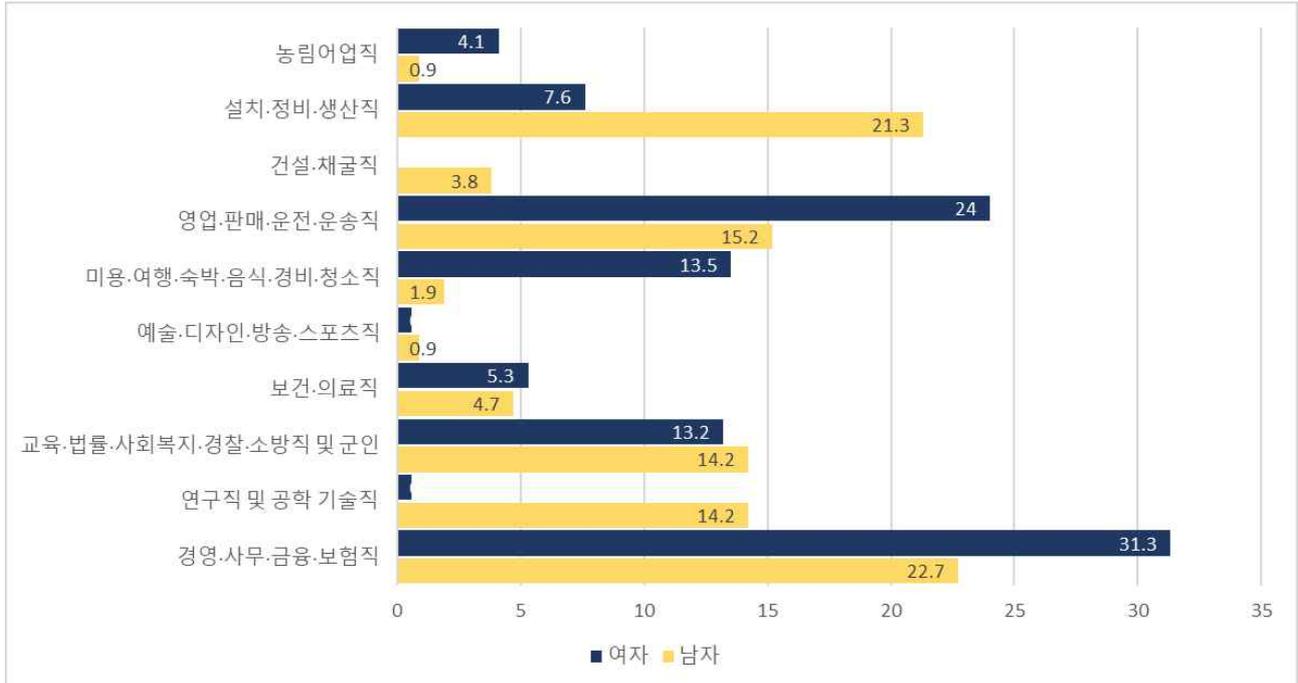
[그림2-10]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단위: %)



[그림2-11] 성별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단위: %)



〈표2-21〉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성별, 연령별, 퇴직여부)

(단위: 명, %)

	[전 체]	성별		연령			퇴직	
		남자	여자	만50세~ 만55세 미만	만55세~ 만60세 미만	만60세 이상	퇴직	퇴직 예정
응답자수	553	211	342	122	210	221	316	237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8	22.7	31.3	21.3	30.5	29.4	35.4	18.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5.8	14.2	0.6	14.8	3.8	2.7	2.2	10.5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6	14.2	13.2	19.7	11	12.7	12	15.6
보건·의료직	5.1	4.7	5.3	8.2	5.7	2.7	2.2	8.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7	0.9	0.6	0.8	0.5	0.9	0.6	0.8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	1.9	13.5	3.3	10	11.3	9.8	8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0.6	15.2	24	17.2	21.9	21.3	22.2	18.6
건설·채굴직	1.4	3.8	-	0.8	2.9	0.5	0.9	2.1
설치·정비·생산직	12.8	21.3	7.6	13.9	13.3	11.8	10.4	16
농림어업직	2.9	0.9	4.1	-	0.5	6.8	4.1	1.3

〈표2-22〉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지역, 고용형태)

(단위: 명, %)

	[전 체]	지역		고용 형태			
		행복 도시	행복 도시 외	정규직(무기 계약직 포함)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응답자수	553	312	241	376	61	87	29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8	29.5	26.1	35.6	18	5.7	17.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5.8	3.5	8.7	4.3	8.2	8	13.8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6	12.5	14.9	14.6	11.5	11.5	10.3
보건·의료직	5.1	2.9	7.9	5.3	3.3	4.6	6.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7	0.6	0.8	0.5	-	1.1	3.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	11.5	5.8	5.9	21.3	16.1	3.4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0.6	22.8	17.8	16.2	23	34.5	31
건설·채굴직	1.4	2.2	0.4	2.1	-	-	-
설치·정비·생산직	12.8	12.5	13.3	15.2	13.1	5.7	3.4
농림어업직	2.9	1.9	4.1	0.3	1.6	12.6	10.3

4. 퇴직 경험 및 현재 상황

4.1. 퇴직 기간

- 응답자 중 60세 미만 응답자의 56% 이상이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만 60세 이상 중에서는 21.3%만 퇴직전인 상태임
- 만60세 이상 응답자 중 48.9%는 퇴직한지 3년 미만(1년미만 23.5% + 1~3년 미만 25.3%)

〈표2-23〉 퇴직기간

(단위: 명, %)

		응답자수	근무중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 체]		553	42.9	14.8	18.3	7.4	4.0	12.7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58.2	4.9	17.2	8.2	1.6	9.8
	만55세~만60세 미만	210	56.7	11.4	11.4	3.8	4.3	12.4
	만60세 이상	221	21.3	23.5	25.3	10.4	5.0	14.5
지역	행복도시	312	40.1	15.4	17.6	5.8	6.7	14.4
	행복도시 외	241	46.5	14.1	19.1	9.5	0.4	10.4

4.2.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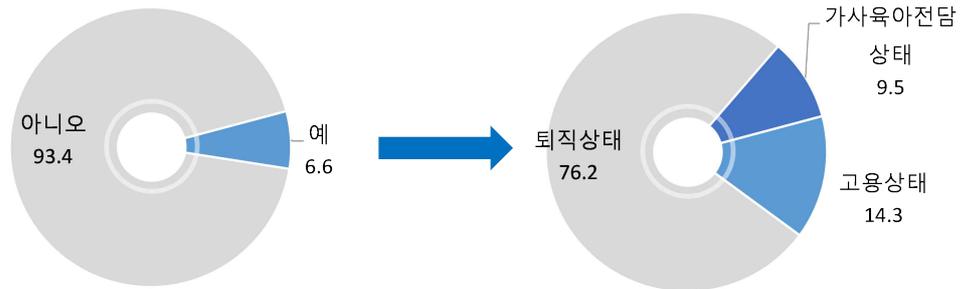
- 퇴직자 중 6.6%가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험이 있으며, 퇴직상태에서->취·창업인 경우는 76.2%, 퇴직 전 고용상태에서 취·창업인 경우는 14.3%임
-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재취업이나 창업의 경험이 더 많았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퇴직 이후보다 고용된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2-12]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의 경험

(단위: %)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창업 경험>

<재취업/창업시 직업이동 경로>



<표2-24>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의 경험-퇴직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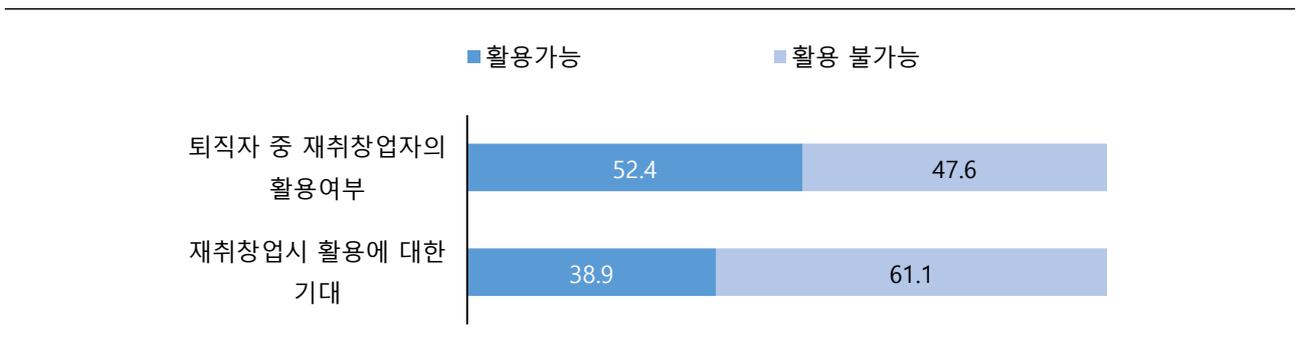
		응답자수	예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 경험=100.0		
				고용상태	퇴직상태	가사육아전담상태
[전 체]		316	6.6	14.3	76.2	9.5
성별	남자	90	8.9	12.5	87.5	-
	여자	226	5.8	15.4	69.2	15.4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51	3.9	-	50.0	50.0
	만55세~만60세 미만	91	3.3	33.3	66.7	-
	만60세 이상	174	9.2	12.5	81.3	6.3
지역	행복도시	187	7.5	14.3	78.6	7.1
	행복도시 외	129	5.4	14.3	71.4	14.3

4.3. 퇴직 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및 역량 활용에 대한 기대

-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이나 역량을 활용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52.4%이었으며, 향후 재취업 또는 창업시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응답자는 38.9%으로 조사됨
- 현재 퇴직 예정 중인 만50~55세 미만이 그 이상 연령대보다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행복도시 지역 거주자보다 행복도시 외 거주자들에서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았음
-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한 응답자 중 주된 직장이 중소기업이었던 경우는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을 활용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69.2%인데 반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했던 경우에는 재취업시 해당 경력을 활용한 비율이 14.3%로 낮았음
- 향후 재취업 또는 창업시 국가 및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응답자 중 45% 이상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희망하는데 반해, 그 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2-13] 퇴직 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및 역량 활용에 대한 기대

(단위: %)



〈표2-25〉 주된 직장 경력 활용 직업 활용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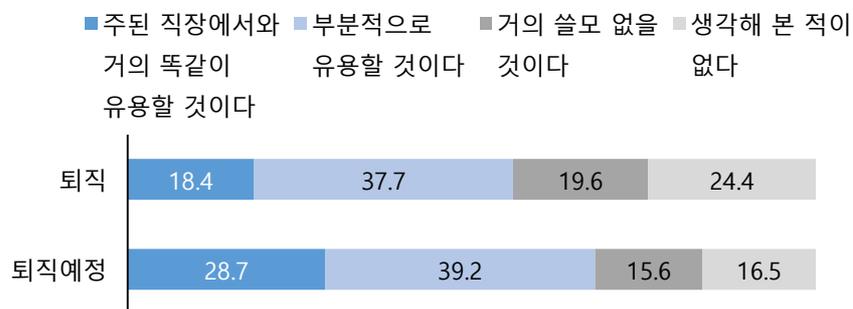
(단위: 명, %)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 경험자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 희망자		
		응답자수	활용 가능	활용 불가능	응답자수	활용 희망	희망하지 않음
[전 체]		21	52.4	47.6	553	38.9	61.1
성별	남자	8	62.5	37.5	211	39.8	60.2
	여자	13	46.2	53.8	342	38.3	61.7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2	50.0	50.0	122	28.7	71.3
	만55세~만60세 미만	3	100.0	-	210	41.9	58.1
	만60세 이상	16	43.8	56.3	221	41.6	58.4
지역	행복도시	14	64.3	35.7	312	42.3	57.7
	행복도시 외	7	28.6	71.4	241	34.4	65.6
주된직장	국가·지방자치단체	-	-	-	46	45.7	54.3
	공공기관	1	100.0	-	48	47.9	52.1
	대기업	-	-	-	27	22.2	77.8
	중소기업	13	69.2	30.8	310	39.7	60.3
	비영리법인	7	14.3	85.7	106	32.1	67.9

- 재취업 또는 창업 시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과 역량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결과, 61.1%는 기존 직장에서의 거의 같거나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된 직장이 국가·지자체이거나 공공기관이었던 경우 70% 내외가 기존 경력이나 역량이 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55.6%), 중소기업(59.7%), 비영리법인(54.7%)인 경우는 기존 경력의 유용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그림2-14] 퇴직 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및 역량의 유용성

(단위: %)



〈표2-26〉 퇴직 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 및 역량의 유용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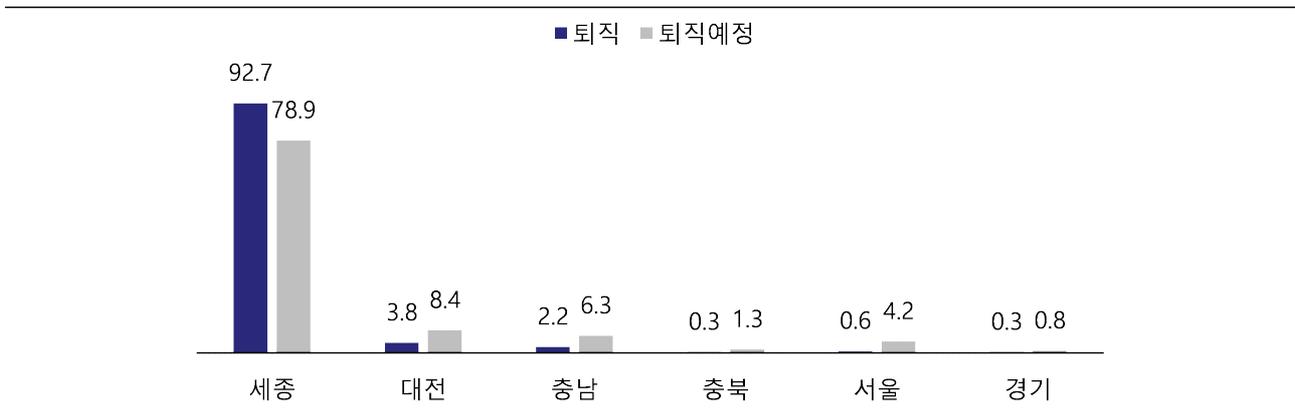
		응답자수	주된 직장에서의와 거의 똑같이 유용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거의 쓸모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 체]		553	22.8	38.3	17.9	21.0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20.5	43.4	22.1	13.9
	만55세~만60세 미만	210	22.9	38.6	16.7	21.9
	만60세 이상	221	24.0	35.3	16.7	24.0
퇴직	퇴직	316	18.4	37.7	19.6	24.4
	퇴직예정	237	28.7	39.2	15.6	16.5
지역	행복도시	312	23.1	37.2	17.0	22.8
	행복도시 외	241	22.4	39.8	19.1	18.7
주된 직장	국가·지방자치단체	46	21.7	47.8	10.9	19.6
	공공기관	48	18.8	58.3	10.4	12.5
	대기업	27	22.2	33.3	22.2	22.2
	중소기업	310	24.2	35.5	18.7	21.6
	비영리법인	106	19.8	34.9	22.6	22.6

4.4. 재취업·창업 희망 지역 및 이유

- 향후 재취업 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퇴직한 응답자는 92.7%가 세종을 선호하는 반면,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세종 외 지역에서의 재취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음
-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여성이 세종지역 내에서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세종 외 다른 지역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2-15] 재취업(창업) 희망 지역

(단위: %)



〈표2-27〉 재취업(창업) 희망 지역

(단위: 명, %)

		응답자수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서울	경기
[전 체]		553	86.8	5.8	4.0	0.7	2.2	0.5
성별	남자	211	74.9	8.5	7.6	1.9	5.7	1.4
	여자	342	94.2	4.1	1.8	-	-	-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64.8	13.9	9.0	2.5	7.4	2.5
	만55세~만60세 미만	210	90.5	3.3	4.8	0.5	1.0	-
	만60세 이상	221	95.5	3.6	0.5	-	0.5	-
퇴직	퇴직	316	92.7	3.8	2.2	0.3	0.6	0.3
	퇴직예정	237	78.9	8.4	6.3	1.3	4.2	0.8
지역	행복도시	312	94.2	2.9	2.2	0.3	0.3	-
	행복도시 외	241	77.2	9.5	6.2	1.2	4.6	1.2

- 세종지역 내 재취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중 36.9%는 가족 또는 지인이 거주하기 때문이며, 서울, 대전과 충남은 편리한 인프라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높은 연봉을 목적으로 세종 외 지역에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 응답자는 원거주지이거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종지역 내 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주된 직장에서 서비스직으로 근무한 비중이 높았고, 월평균 임금수준 역시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만큼 타 지역에서 취업이나 창업 보다는 세종지역 내에서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업이나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표2-28〉 재취업(창업) 희망 지역을 선택한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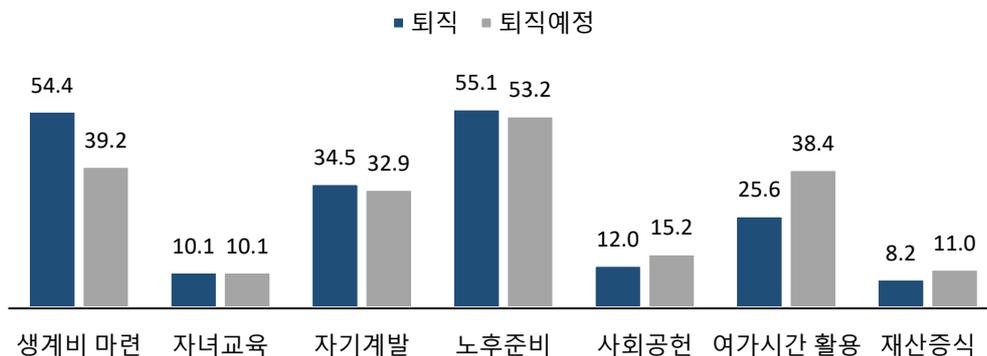
		응답자수	원거주지	기존 경력 관련 취업처가 많아서	높은 연봉	편리한 인프라	가족 또는 지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경제적 여건
[전 체]		553	16.6	13.2	2.9	29.8	34.4	3.1
성별	남자	211	12.3	11.8	7.6	31.3	35.1	1.9
	여자	342	19.3	14.0	-	28.9	33.9	3.8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10.7	11.5	10.7	31.1	29.5	6.6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5.2	13.3	1.4	31.0	37.1	1.9
	만60세 이상	221	21.3	14.0	-	28.1	34.4	2.3
퇴직	퇴직	316	19.6	10.8	0.3	29.4	36.1	3.8
	퇴직예정	237	12.7	16.5	6.3	30.4	32.1	2.1
지역	행복도시	312	15.7	13.1	0.3	31.1	35.9	3.8
	행복도시 외	241	17.8	13.3	6.2	28.2	32.4	2.1
취업 희망 지역	세종	480	17.7	12.7	-	29.6	36.9	3.1
	대전	32	12.5	15.6	21.9	31.3	18.8	-
	충남	22	13.6	13.6	22.7	36.4	9.1	4.5
	충북	4	-	25.0	25.0	-	50.0	-
	서울	12	-	16.7	25.0	41.7	16.7	-
	경기	3	-	33.3	-	-	33.3	33.3

4.5. 재취업·창업의 목적

- 퇴직자는 노후준비와 생계비 마련을, 퇴직예정자는 노후준비, 여가시간 활용, 생계비 마련이 주된 재취창업의 목적임

[그림2-16] 재취업(창업)을 하려는 이유(퇴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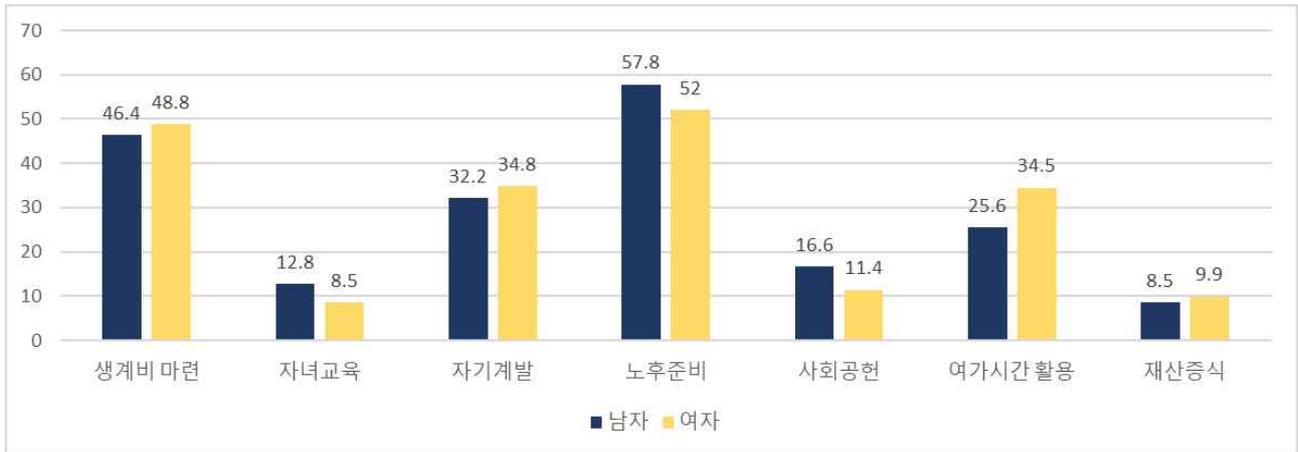
(단위: %)



- 노후준비나 생계비 마련 외, 남성 응답자는 여성에 비해 자녀교육(12.8%), 사회공헌(16.6%)의 목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반면, 여성은 여가시간 활용(34.5%)의 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2-17] 재취업(창업)을 하려는 이유(복수응답, 성별)

(단위: %)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취업과 창업의 목적에 차이를 보임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계비마련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여가시간의 활용,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 차이를 보임

<표2-29> 재취업(창업)을 하려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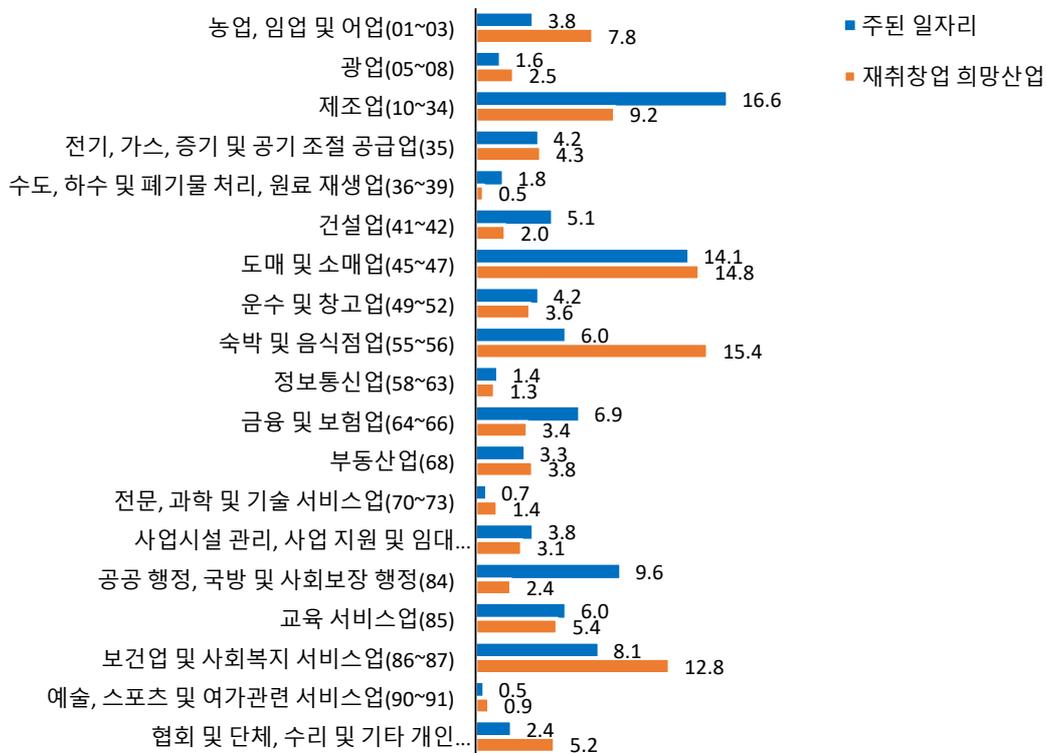
		응답자수	생계비 마련	자녀교육	자기계발	노후준비	사회공헌	여가시간 활용	재산증식
[전 체]		553	47.9	10.1	33.8	54.2	13.4	31.1	9.4
성별	남자	211	46.4	12.8	32.2	57.8	16.6	25.6	8.5
	여자	342	48.8	8.5	34.8	52.0	11.4	34.5	9.9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7.7	20.5	42.6	51.6	17.2	27.0	3.3
	만55세~만60세 미만	210	46.7	9.0	35.7	45.2	13.8	37.6	11.9
	만60세 이상	221	54.8	5.4	27.1	64.3	10.9	27.1	10.4
퇴직	퇴직	316	54.4	10.1	34.5	55.1	12.0	25.6	8.2
	퇴직예정	237	39.2	10.1	32.9	53.2	15.2	38.4	11.0
지역	행복도시	312	54.8	8.3	31.1	56.7	10.6	27.9	10.6
	행복도시 외	241	39.0	12.4	37.3	51.0	17.0	35.3	7.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17	58.1	15.4	29.1	52.1	14.5	27.4	3.4
	300~400만원 미만	177	45.2	12.4	37.3	60.5	13.6	23.2	7.9
	400~500만원 미만	96	45.8	3.1	33.3	47.9	14.6	38.5	16.7
	500만원 이상	163	44.8	8.0	33.7	52.8	11.7	38.0	11.0

4.6.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산업

- 퇴직 전 주된 일자리는 제조업(16.4%), 도소매업(14.1%),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9.6%) 등이었으나, 재취창업을 희망하는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5.4%), 도소매업(14.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8%) 등의 분야를 희망

[그림2-18]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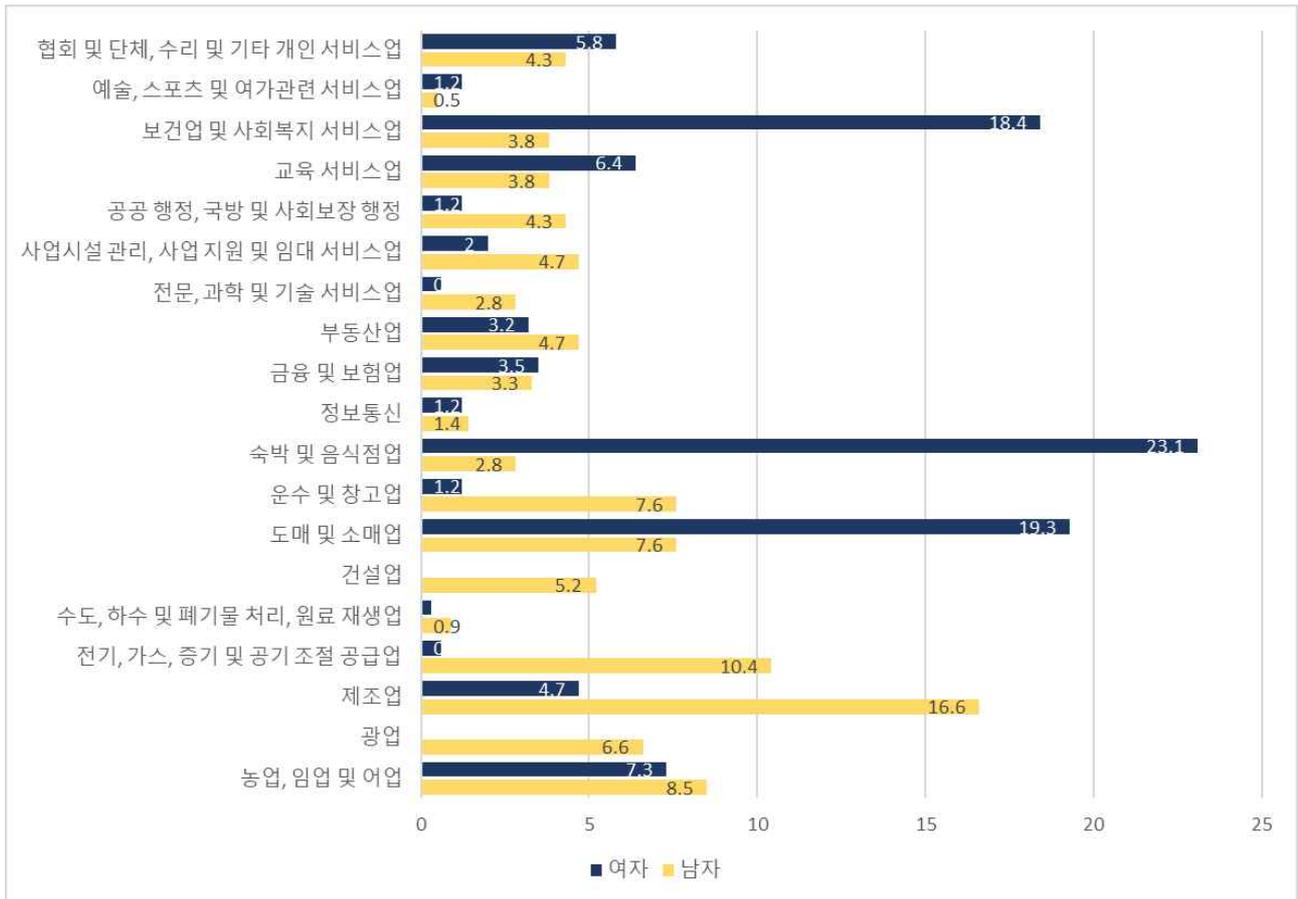
(단위: %)



- 고졸이하 학력자의 25.2%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19.1%는 도소매업을 선호하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자 중 12.4%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2%는 제조업에 재취창업을 선호
- 남성 응답자의 16.6%는 제조업, 10.4%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등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 응답자 중 23.1%는 숙박 및 음식점업, 19.3%는 도소매업, 18.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재취창업을 선호

[그림2-19]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산업(성별)

(단위: %)



<표2-30> 재취업 및 창업 시 희망하는 산업

(단위: 명, %)

	[전 체]	성별		학력	
		남자	여자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응답자수	553	211	342	278	275
농업, 임업 및 어업	7.8	8.5	7.3	9.4	6.2
광업	2.5	6.6	0	0.4	4.7
제조업	9.2	16.6	4.7	8.3	1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3	10.4	0.6	1.4	7.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5	0.9	0.3	0.4	0.7
건설업	2	5.2	0	1.1	2.9
도매 및 소매업	14.8	7.6	19.3	19.1	10.5
운수 및 창고업	3.6	7.6	1.2	2.2	5.1
숙박 및 음식점업	15.4	2.8	23.1	25.2	5.5
정보통신	1.3	1.4	1.2	0.7	1.8
금융 및 보험업	3.4	3.3	3.5	1.8	5.1
부동산업	3.8	4.7	3.2	1.4	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2.8	0.6	1.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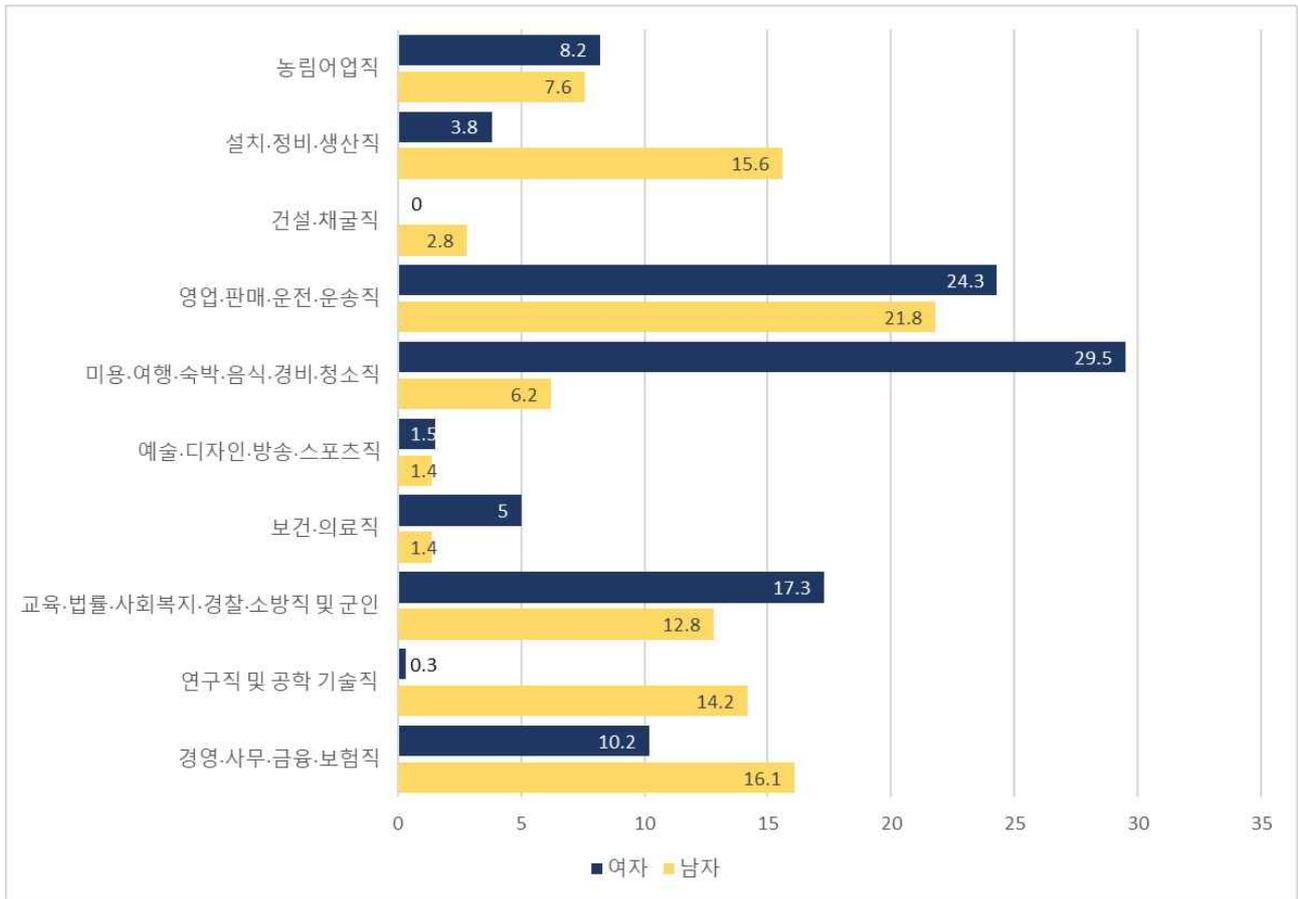
	[전 체]	성별		학력	
		남자	여자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응답자수	553	211	342	278	27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1	4.7	2	3.2	2.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	4.3	1.2	1.4	3.3
교육 서비스업	5.4	3.8	6.4	1.4	9.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8	3.8	18.4	13.3	1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	0.5	1.2	0.7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	4.3	5.8	7.6	2.9

4.7.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

-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는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23.3%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0.6%,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5.6%,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2.5% 등을 희망
 - 퇴직 전 주된 일자리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희망하는 직무도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나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경우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영업·판매·운전·운송직 등의 단순 업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재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직무는 성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 응답자의 21.8%는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을, 16.1%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6%는 설치·정비·생산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 응답자는 29.5%가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4.3%는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을 희망

[그림2-20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성별)]

(단위: %)



<표2-31> 재취업 및 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성별, 연령별, 퇴직여부별)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			퇴직	
		남자	여자	만50세~ 만55세 미만	만55세~ 만60세 미만	만60세 이상	퇴직	퇴직 예정
응답자수	553	211	342	122	210	221	316	237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2.5	16.1	10.2	12.3	14.8	10.4	11.4	13.9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5.6	14.2	0.3	15.6	3.8	1.8	2.2	10.1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5.6	12.8	17.3	14.8	17.6	14	12.7	19.4
보건·의료직	3.6	1.4	5	4.9	5.2	1.4	1.3	6.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4	1.4	1.5	3.3	0.5	1.4	1.6	1.3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0.6	6.2	29.5	11.5	20.5	25.8	26.6	12.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3.3	21.8	24.3	25.4	21.4	24	27.2	18.1
건설·채굴직	1.1	2.8	-	0.8	1.9	0.5	0.9	1.3
설치·정비·생산직	8.3	15.6	3.8	9	9	7.2	7.6	9.3
농림어업직	8	7.6	8.2	2.5	5.2	13.6	8.5	7.2

〈표2-32〉 재취업 및 창업 시 희망하는 직무(지역별, 주된직장별)

(단위: 명, %)

	전체	지역		주된직장					
		행복 도시	행복 도시 외	국가·지방 자치단체	공공 기관	대기업	중소 기업	비영리 법인	기타
응답자수	553	312	241	46	48	27	310	106	16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2.5	13.8	10.8	26.1	33.3	14.8	8.4	10.4	-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5.6	4.2	7.5	6.5	6.3	29.6	4.5	2.8	-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5.6	13.5	18.3	30.4	22.9	18.5	11.3	17.9	12.5
보건·의료직	3.6	2.6	5	4.3	-	-	2.3	9.4	6.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4	1	2.1	-	2.1	-	1.6	1.9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0.6	26	13.7	10.9	10.4	3.7	28.7	10.4	18.8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3.3	22.1	24.9	13	10.4	29.6	25.8	26.4	12.5
건설·채굴직	1.1	1.6	0.4	-	-	3.7	1.3	0.9	-
설치·정비·생산직	8.3	8.7	7.9	4.3	8.3	-	11.3	4.7	-
농림어업직	8	6.7	9.5	4.3	6.3	-	4.8	15.1	50

4.8. 재취업·창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재취창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임금수준 > 직무의 강도 > 근무시간 > 적성 및 흥미 등을 주로 고려
- 재취창업 이유를 기준으로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임금수준과 직무의 강도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임금수준과 고용의 안정성,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적성 및 흥미가 중요한 재취창업의 이유임
 - 그 외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임금수준과 적성 및 흥미, 여가시간 활용을 목적으로 재취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과 적성 및 흥미를 주요 선택 요인으로 응답

〈표2-33〉 재취업·창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성별, 연령별, 학력별)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			학력	
		남자	여자	만50세~ 만55세 미만	만55세~ 만60세 미만	만60세 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응답자수	553	211	342	122	210	221	278	275
새로운 직업	19.3	18	20.2	15.6	21.4	19.5	18.7	20
같은 직업 내 다른 직장	14.5	13.3	15.2	9.8	18.6	13.1	12.6	16.4
임금수준	32.2	32.7	31.9	33.6	34.3	29.4	37.4	26.9
직무의 강도	25.7	26.1	25.4	29.5	24.3	24.9	26.6	24.7
근무시간	23.3	22.7	23.7	27	21	23.5	26.3	20.4
적성 및 흥미	26.9	25.6	27.8	27	26.7	27.1	24.8	29.1
학력적합성	4.2	8.5	1.5	7.4	3.8	2.7	2.5	5.8
고용 안정성	18.8	19.4	18.4	18	16.7	21.3	18	19.6
출퇴근 시간	8	6.6	8.8	10.7	7.1	7.2	8.6	7.3
퇴직까지 남은 기간	2.7	3.8	2	2.5	4.3	1.4	1.1	4.4
능력 발휘 기회	11.8	10.9	12.3	13.1	11.9	10.9	12.2	11.3
자아실현	5.6	5.7	5.6	4.1	3.3	8.6	6.1	5.1
일로부터의 즐거움과 보람	6.1	5.7	6.4	1.6	5.7	9	4	8.4
사회공헌	0.9	0.9	0.9	-	1	1.4	1.1	0.7

〈표2-34〉 재취업·창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취·창업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	취·창업 이유(1순위)					
		생계비 마련	자녀교육	자기개발	노후준비	사회공헌	여가시간 활용
응답자수	553	217	28	112	109	22	54
새로운 직업	19.3	18.9	10.7	15.2	19.3	22.7	29.6
같은 직업 내 다른 직장	14.5	15.7	14.3	15.2	14.7	9.1	11.1
임금수준	32.2	48.8	35.7	17.9	27.5	18.2	11.1
직무의 강도	25.7	32.3	17.9	25	22.9	18.2	14.8
근무시간	23.3	24	39.3	18.8	24.8	27.3	18.5
적성 및 흥미	26.9	18	14.3	38.4	27.5	40.9	33.3
학력적합성	4.2	0.9	7.1	10.7	3.7	9.1	1.9
고용 안정성	18.8	18.9	39.3	10.7	22.9	4.5	20.4
출퇴근 시간	8	5.5	14.3	8.9	5.5	18.2	14.8
퇴직까지 남은 기간	2.7	0.9	7.1	4.5	-	9.1	7.4
능력 발휘 기회	11.8	9.2	-	18.8	11	13.6	14.8
자아실현	5.6	1.4	-	9.8	8.3	4.5	13
일로부터의 즐거움과 보람	6.1	4.6	-	5.4	11.9	-	7.4
사회공헌	0.9	0.9	-	0.9	-	4.5	1.9

□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재취업·창업시 고려하는 요인에 차이를 보임

-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재취업·창업시 '새로운 직업', '적성 및 흥미', '능력발휘의 기회' 등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반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임금수준', '근무시간', '학력의 적합성' 등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 즉, 재취업이나 창업시 가구 소득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임금 수준보다는 기존 경력의 활용과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이 더 중요한 직업 선택의 기준인 반면,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는 임금 수준이 원하는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한 직업 선택 요인임
- 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생계비와 자녀교육비 마련의 목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만큼 직업 선택시 임금수준이 가장 중요

〈표2-35〉 재취업·창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월평균 소득)(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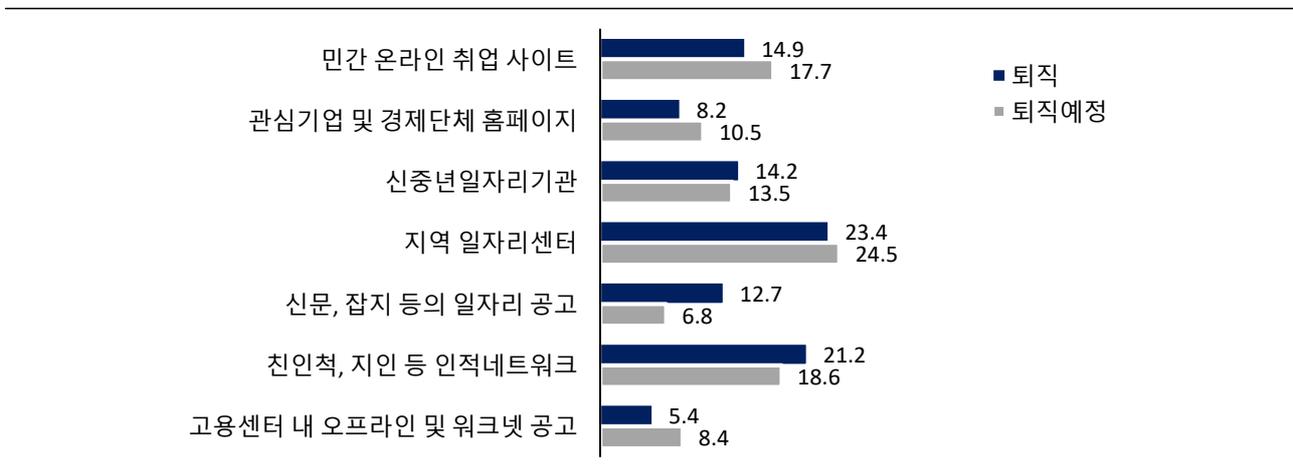
	전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응답자수	553	117	177	96	163
새로운 직업	19.3	17.1	12.4	20.8	27.6
같은 직업 내 다른 직장	14.5	14.5	19.2	12.5	10.4
임금수준	32.2	41.9	34.5	30.2	23.9
직무의 강도	25.7	23.9	36.2	19.8	19
근무시간	23.3	26.5	26.6	24	17.2
적성 및 흥미	26.9	21.4	20.3	37.5	31.9
학력적합성	4.2	5.1	6.8	2.1	1.8
고용 안정성	18.8	22.2	16.4	16.7	20.2
출퇴근 시간	8	6	6.8	5.2	12.3
퇴직까지 남은 기간	2.7	3.4	1.7	3.1	3.1
능력 발휘 기회	11.8	7.7	9.6	12.5	16.6
자아실현	5.6	3.4	5.1	8.3	6.1
일로부터의 즐거움과 보람	6.1	6	3.4	6.3	9.2
사회공헌	0.9	0.9	1.1	1	0.6

4.9. 재취업·창업 정보 습득 경로

□ 재취창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역 일자리센터, 친인척이나 지인 등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

[그림2-21] 재취업·창업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 남성은 주로 관심기업의 홈페이지나 민간 취업사이트를 통해, 여성은 신중년일자리 기관이나 인적네트워크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36〉 재취업 및 창업 정보 습득 경로(성별, 연령별)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만50세~ 만55세 미만	만55세~ 만60세 미만	만60세 이상
응답자수	553	211	342	122	210	221
민간 온라인 취업 사이트	16.1	17.5	15.2	15.6	20.5	12.2
관심 기업 및 경제단체 홈페이지 내 공고	9.2	11.4	7.9	11.5	7.6	9.5
신중년 일자리 기관	13.9	10	16.4	12.3	15.7	13.1
지자체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등 지역 일자리 센터	23.9	25.6	22.8	25.4	22.9	24
신문, 잡지 등의 일자리 공고	10.1	10.4	9.9	14.8	7.1	10.4
친인척, 지인 등 인적네트워크	20.1	17.5	21.6	10.7	21	24.4
고용센터 내 오프라인 및 워크넷 공고	6.7	7.6	6.1	9.8	5.2	6.3

〈표2-37〉 재취업 및 창업 정보 습득 경로(퇴직여부별, 지역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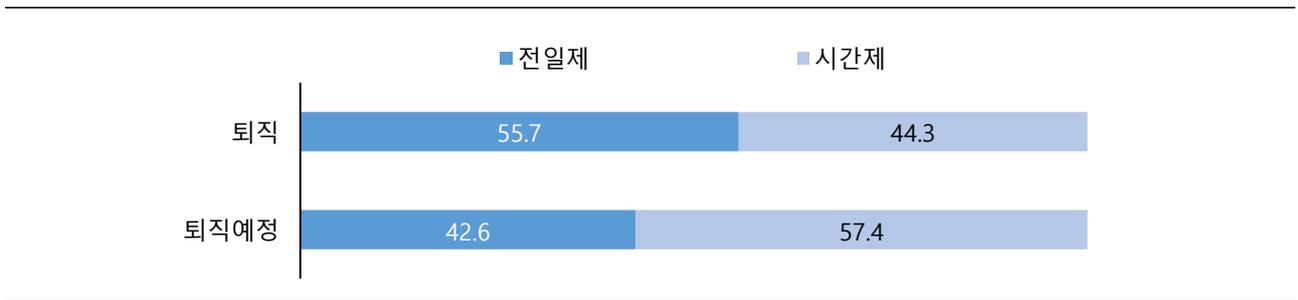
	전체	퇴직		지역	
		퇴직	퇴직예정	행복도시	행복도시 외
응답자수	553	316	237	312	241
민간 온라인 취업 사이트	16.1	14.9	17.7	18.3	13.3
관심 기업 및 경제단체 홈페이지 내 공고	9.2	8.2	10.5	9	9.5
신중년 일자리 기관	13.9	14.2	13.5	12.5	15.8
지자체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등 지역 일자리 센터	23.9	23.4	24.5	23.4	24.5
신문, 잡지 등의 일자리 공고	10.1	12.7	6.8	9	11.6
친인척, 지인 등 인적네트워크	20.1	21.2	18.6	21.8	17.8
고용센터 내 오프라인 및 워크넷 공고	6.7	5.4	8.4	6.1	7.5

4.10.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고용 및 근무 형태

- 재취업 또는 창업시 이미 퇴직한 경우는 전일제를, 퇴직을 예정 중인 경우는 시간제를 선호
-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또는 자영업자 형태의 고용을 더 선호하는 편
 -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64.3%가 정규직 형태를 희망하지만 비정규직(17.7%)이나, 자영업자(13.4%)를 희망하는 경우도 다수
 - 시간제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주로 비정규직 형태(43.8%), 자영업(23.6%) 등을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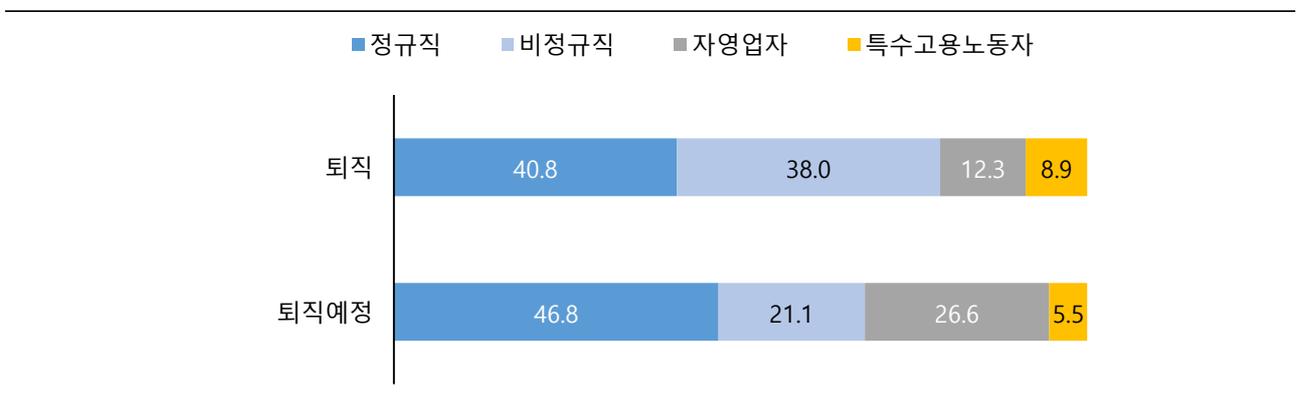
[그림2-22]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근무형태

(단위: %)



[그림2-23]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고용 형태

(단위: %)



〈표2-38〉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근무형태 및 고용형태

(단위: 명, %)

		응답자수	희망하는 근무형태		희망하는 고용 형태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 체]		553	50.1	49.9	553	43.4	30.7	18.4
성별	남자	211	48.8	51.2	211	17.4	9.2	9.4
	여자	342	50.9	49.1	342	26.0	21.5	9.0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45.1	54.9	36.9	25.4	28.7	9.0
	만55세~만60세 미만	210	56.2	43.8	52.4	31.4	11.4	4.8
	만60세 이상	221	47.1	52.9	38.5	33.0	19.5	9.0
퇴직	퇴직	316	55.7	44.3	40.8	38.0	12.3	8.9
	퇴직예정	237	42.6	57.4	46.8	21.1	26.6	5.5
지역	행복도시	312	54.2	45.8	50.0	29.8	13.1	7.1
	행복도시 외	241	44.8	55.2	34.9	32.0	25.3	7.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17	44.4	55.6	34.2	42.7	12.8	10.3
	300~400만원 미만	177	45.2	54.8	42.9	30.5	19.2	7.3
	400~500만원 미만	96	50.0	50.0	41.7	31.3	16.7	10.4
	500만원 이상	163	59.5	40.5	51.5	22.1	22.7	3.7

4.11. 재취업·창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

- 재취창업시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36.5%, 250~300만원 사이가 31.3%임
- 근무시간이 전일제인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 37.2%는 250~300만원 수준의 임금을 희망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는 250만원 미만수준을 기대
-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250~300만원 미만 수준을 희망하는 경우가 36.7%, 300~350만원 수준을 희망하는 경우는 29.2%인데 반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는 54.7%가 250만원 미만 정도의 임금 수준을 기대하고 있어 희망하는 일자리에 따라 기대 임금수준에도 차이를 보임
- 다만 자영업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29.4%가 월평균 300~350만원 수준을 기대 하고 있으며, 350~400만원 수준을 희망하는 경우는 11.8%로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기대하는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격적인 형태보다는 소액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표2-39〉 희망하는 월 평균 임금(세전)

(단위: 명, %)

		응답자수	250만원 미만	25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350만원 미만	350만원~400만원 이상	400만원~450만원 미만	45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 체]		553	36.5	31.3	24.1	5.1	2.2	0.2	0.7
성별	남자	211	14.2	31.3	37.0	11.4	5.2	-	0.9
	여자	342	50.3	31.3	16.1	1.2	0.3	0.3	0.6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24.6	40.2	26.2	3.3	4.9	-	0.8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8.1	30.0	21.9	6.7	2.4	0.5	0.5
	만60세 이상	221	41.6	27.6	24.9	4.5	0.5	-	0.9
퇴직	퇴직	316	40.8	33.5	19.9	4.1	0.9	0.3	0.3
	퇴직예정	237	30.8	28.3	29.5	6.3	3.8	-	1.3
지역	행복도시	312	38.1	30.4	23.4	4.8	2.6	0.3	0.3
	행복도시 외	241	34.4	32.4	24.9	5.4	1.7	-	1.2
시간	전일제	277	23.8	37.2	27.8	7.2	3.2	-	0.7
	시간제	276	49.3	25.4	20.3	2.9	1.1	0.4	0.7
고용 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240	27.9	36.7	29.2	4.6	1.7	-	-
	비정규직	170	54.7	28.8	14.1	2.4	-	-	-
	자영업자	102	22.5	27.5	29.4	11.8	4.9	1.0	2.9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41	46.3	19.5	22.0	2.4	7.3	-	2.4

□ 응답자 중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전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비해 많은 편으로 임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편임

〈참고2〉 희망하는 월 평균 임금(세전)-2022.05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55~79세

(단위: %)

		월평균 50만원미만	월평균 50~100만원미만	월평균 100~150만원미만	월평균 150~300만원미만	월평균 300만원이상
[전 체]		4.9	12.2	17.8	50.2	15.0
성별	남자	2.1	6.3	12.5	55.6	23.5
	여자	8.1	19.2	24.0	43.8	4.9

4.12. 재취업·창업의 장애요인4)

-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데 있어 직무능력이나 정보수집, 일자리 부족이 얼마나 장애가 될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신중년에게 적합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의 부족 > 재취업 관련 정보수집의 어려움 > 이력서 작성, 면접 등 재취업 기술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장애물로 평가되었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각각의 사항이 장애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나, 육아, 가사 등과의 병행, 일자리 부족, 정보수집의 어려움, 재취업 기술의 부족 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일자리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인대상 일자리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접근 가능한 일자리가 많다는 점에서 만 50~60세 미만 연령대에 대한 일자리·정보 제공이 요구됨

〈표2-40〉 재취업(창업) 장애요인

(단위: 명, 점)

문항	변수	응답자수	평균(5점 기준)
관련 직무능력 부족(자격증 미보유 등)	만50세~만55세 미만	122	2.8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1
	만60세 이상	221	3.0
원하는 일자리에서의 높은 취업 경쟁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3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4
	만60세 이상	221	3.4
새로운 일(직장) 시작에 대한 두려움 및 적응의 어려움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2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2
	만60세 이상	221	3.3
육아, 가사 등과 일과의 병행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3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1
	만60세 이상	221	3.0
신중년에게 적합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의 부족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6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5
	만60세 이상	221	3.4
재취업 관련 정보수집의 어려움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6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4
	만60세 이상	221	3.2
이력서 작성, 면접 등 재취업 기술의 부족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5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2
	만60세 이상	221	3.2

4) 재취업·창업의 장애요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됨(1=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5=매우 큰 장애이다)

〈표2-41〉 재취업시 장애요인(관련 직무능력 부족(자격증 미보유 등))

(단위: 명, %, 점)

		응답자수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일부장애가 된다	매우 큰 장애이다	평균 (5점 기준)
[전 체]		553	4.3	25.5	40.5	25.1	4.5	3.0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5.7	36.1	34.4	20.5	3.3	2.80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9	24.8	41.4	28.1	3.8	3.07
	만60세 이상	221	5.9	20.4	43.0	24.9	5.9	3.05
퇴직	퇴직	316	4.1	15.2	43.0	31.3	6.3	3.21
	퇴직예정	237	4.6	39.2	37.1	16.9	2.1	2.73
지역	행복도시	312	4.5	22.4	41.0	26.3	5.8	3.06
	행복도시 외	241	4.1	29.5	39.8	23.7	2.9	2.92

〈표2-42〉 재취업시 장애요인(원하는 일자리에서의 높은 취업 경쟁)

(단위: 명, %, 점)

		응답자수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일부장애가 된다	매우 큰 장애이다	평균 (5점 기준)
[전 체]		553	1.4	15.4	39.6	33.5	10.1	3.35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5.7	36.1	34.4	20.5	3.3	3.27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9	24.8	41.4	28.1	3.8	3.27
	만60세 이상	221	5.9	20.4	43.0	24.9	5.9	3.40
퇴직	퇴직	316	4.1	15.2	43.0	31.3	6.3	3.55
	퇴직예정	237	4.6	39.2	37.1	16.9	2.1	3.10
지역	행복도시	312	1.6	13.5	37.2	36.5	11.2	3.42
	행복도시 외	241	1.2	17.8	42.7	29.5	8.7	3.27

〈표2-43〉 재취업시 장애요인(새로운 일(직장) 시작에 대한 두려움 및 적응의 어려움)

(단위: 명, %, 점)

		응답자수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일부장애가 된다	매우 큰 장애이다	평균 (5점 기준)
[전 체]		553	2.5	17.7	39.1	31.8	8.9	3.27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12.3	55.7	26.2	4.9	3.22
	만55세~만60세 미만	210	3.3	20.0	37.1	31.4	8.1	3.21
	만60세 이상	221	2.7	18.6	31.7	35.3	11.8	3.35
퇴직	퇴직	316	2.2	15.5	35.1	36.7	10.4	3.38
	퇴직예정	237	3.0	20.7	44.3	25.3	6.8	3.12
지역	행복도시	312	3.5	17.9	32.4	37.8	8.3	3.29
	행복도시 외	241	1.2	17.4	47.7	24.1	9.5	3.23

〈표2-44〉 재취업시 장애요인(가정생활과 일과의 병행)

(단위: 명, %, 점)

		응답자수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일부장애가 된다	매우 큰 장애이다	평균 (5점 기준)
[전 체]		553	8.7	21.5	27.5	36.0	6.3	3.10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6.6	12.3	29.5	45.1	6.6	3.33
	만55세~만60세 미만	210	8.6	22.4	25.2	36.7	7.1	3.11
	만60세 이상	221	10.0	25.8	28.5	30.3	5.4	2.95
퇴직	퇴직	316	11.4	20.3	25.0	35.4	7.9	3.08
	퇴직예정	237	5.1	23.2	30.8	36.7	4.2	3.12
지역	행복도시	312	11.9	25.0	25.3	31.4	6.4	2.96
	행복도시 외	241	4.6	17.0	30.3	41.9	6.2	3.28

〈표2-45〉 재취업시 장애요인(신중년에게 적합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의 부족)

(단위: 명, %, 점)

		응답자수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일부장애가 된다	매우 큰 장애이다	평균 (5점 기준)
[전 체]		553	1.1	11.8	38.3	39.1	9.8	3.45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	11.5	27.9	52.5	8.2	3.57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9	8.6	41.4	38.1	10.0	3.46
	만60세 이상	221	0.9	14.9	41.2	32.6	10.4	3.37
퇴직	퇴직	316	0.9	9.8	39.2	37.7	12.3	3.51
	퇴직예정	237	1.3	14.3	37.1	40.9	6.3	3.37
지역	행복도시	312	1.3	11.2	38.8	39.1	9.6	3.45
	행복도시 외	241	0.8	12.4	37.8	39.0	10.0	3.45

〈표2-46〉 재취업시 장애요인(재취업 정보 수집의 어려움)

(단위: 명, %, 점)

		응답자수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일부장애가 된다	매우 큰 장애이다	평균 (5점 기준)
[전 체]		553	0.7	13.7	42.3	34.7	8.5	3.37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7.4	41.0	33.6	17.2	3.59
	만55세~만60세 미만	210	-	14.8	41.4	35.7	8.1	3.37
	만60세 이상	221	1.4	16.3	43.9	34.4	4.1	3.24
퇴직	퇴직	316	0.6	10.4	42.4	37.7	8.9	3.44
	퇴직예정	237	0.8	18.1	42.2	30.8	8.0	3.27
지역	행복도시	312	0.6	13.5	42.6	37.5	5.8	3.34
	행복도시 외	241	0.8	14.1	41.9	31.1	12.0	3.39

〈표2-47〉 재취업시 장애요인(이력서 작성, 면접 등 재취업 기술의 부족)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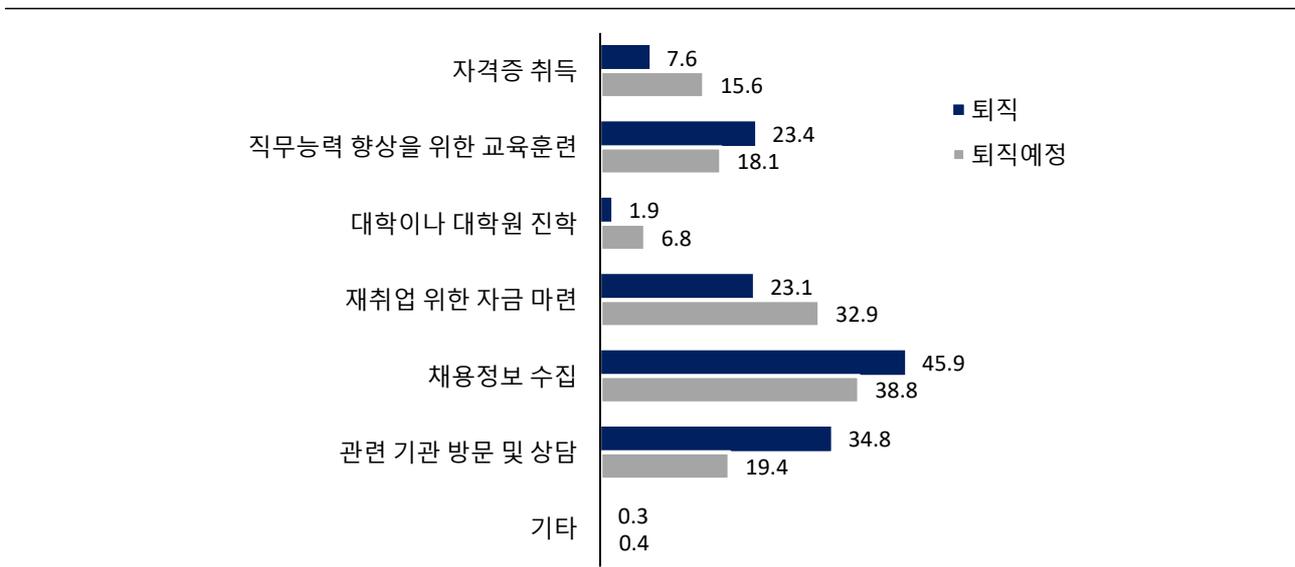
		응답자수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일부장애가 된다	매우 큰 장애이다	평균 (5점 기준)
[전 체]		553	2.7	16.8	38.9	34.9	6.7	3.26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3.3	13.9	29.5	38.5	14.8	3.48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9	17.1	42.4	34.3	4.3	3.22
	만60세 이상	221	3.2	18.1	40.7	33.5	4.5	3.18
퇴직	퇴직	316	2.5	14.6	36.1	40.5	6.3	3.34
	퇴직예정	237	3.0	19.8	42.6	27.4	7.2	3.16
지역	행복도시	312	3.2	14.4	41.0	37.2	4.2	3.25
	행복도시 외	241	2.1	19.9	36.1	32.0	10.0	3.28

4.13. 재취업·창업을 위한 준비

- 재취창업을 위해 채용정보 수집 > 관련 기관 방문 및 상담 >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 재취업을 위한 자금 마련 순으로 준비
 - 퇴직 예정자의 경우 채용정보 수집과 더불어 재취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퇴직자에 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준비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그림2-24] 재취업·창업을 위한 준비(복수응답)

(단위: %)



-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응답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거나 재취업·창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응답자일수록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음
-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구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자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의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표2-48〉 재취업·(창업)을 위한 준비(복수 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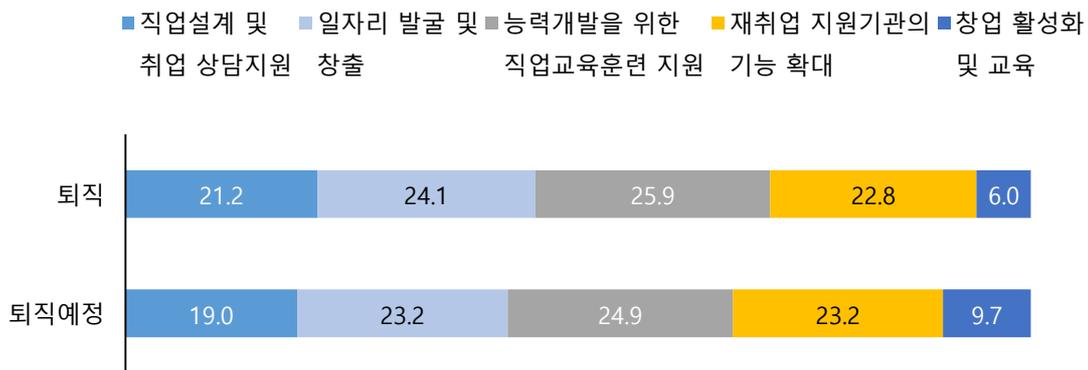
		응답자수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재취업 (창업)을 위한 자금 마련	채용 정보 수집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방문 및 상담	기타
[전 체]		553	11.0	21.2	4.0	27.3	42.9	28.2	0.4
성별	남자	211	13.7	21.3	7.1	33.6	41.7	23.2	0.5
	여자	342	9.4	21.1	2.0	23.4	43.6	31.3	0.3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6.6	22.1	6.6	38.5	36.1	18.9	0.8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2.9	19.0	4.3	25.7	45.2	27.1	0.5
	만60세 이상	221	11.8	22.6	2.3	22.6	44.3	34.4	-
퇴직	퇴직	316	7.6	23.4	1.9	23.1	45.9	34.8	0.3
	퇴직예정	237	15.6	18.1	6.8	32.9	38.8	19.4	0.4
지역	행복도시	312	14.4	21.5	2.9	22.8	44.9	30.4	0.6
	행복도시 외	241	6.6	20.7	5.4	33.2	40.2	25.3	-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17	7.7	24.8	0.9	18.8	44.4	23.9	-
	300~400만원 미만	177	6.8	23.7	8.5	30.5	35.0	24.9	-
	400~500만원 미만	96	10.4	18.8	2.1	24.0	44.8	40.6	1.0
	500만원 이상	163	18.4	17.2	2.5	31.9	49.1	27.6	0.6
취업 이유 (1순위)	생계비 마련	217	11.5	24.0	2.8	22.1	53.5	17.1	0.5
	자녀교육	28	7.1	14.3	10.7	28.6	46.4	28.6	-
	자기계발	112	7.1	23.2	4.5	42.0	25.0	35.7	0.9
	노후준비	109	18.3	18.3	5.5	22.0	44.0	31.2	-
	사회공헌	22	-	22.7	4.5	31.8	22.7	31.8	-
	여가시간 활용	54	9.3	14.8	1.9	22.2	40.7	44.4	-
	재산증식	11	9.1	18.2	-	45.5	45.5	54.5	-

4.14. 신중년의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 일자리 발굴 및 창출 > 재취업 지원기관의 기능 확대 순의 지원을 요구
-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는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창출 > 직업설계 및 취업 상담지원 > 신중년 재취업 지원기관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진학,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30% 이상이 신중년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2-25] 신중년의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표2-49〉 신중년의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응답자수	직업설계 및 취업 상담지원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신중년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신중년 재취업 지원기관의 기능 확대	창업 활성화 및 교육
[전 체]		553	20.3	23.7	25.5	23.0	7.6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15.6	19.7	28.7	25.4	10.7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9.5	24.3	26.7	21.0	8.6
	만60세 이상	221	23.5	25.3	22.6	23.5	5.0
퇴직	퇴직	316	21.2	24.1	25.9	22.8	6.0
	퇴직예정	237	19.0	23.2	24.9	23.2	9.7
지역	행복도시	312	21.5	26.6	24.0	21.2	6.7
	행복도시 외	241	18.7	19.9	27.4	25.3	8.7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61	21.3	29.5	18.0	14.8	16.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117	20.5	22.2	34.2	19.7	3.4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22	13.6	13.6	31.8	27.3	13.6
	재취업(창업)을 위한 자금 마련	151	14.6	22.5	27.2	21.9	13.9
	채용정보 수집	237	25.7	28.3	16.5	21.1	8.4
	중장년(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방문 및 상담	156	12.8	25.0	35.3	25.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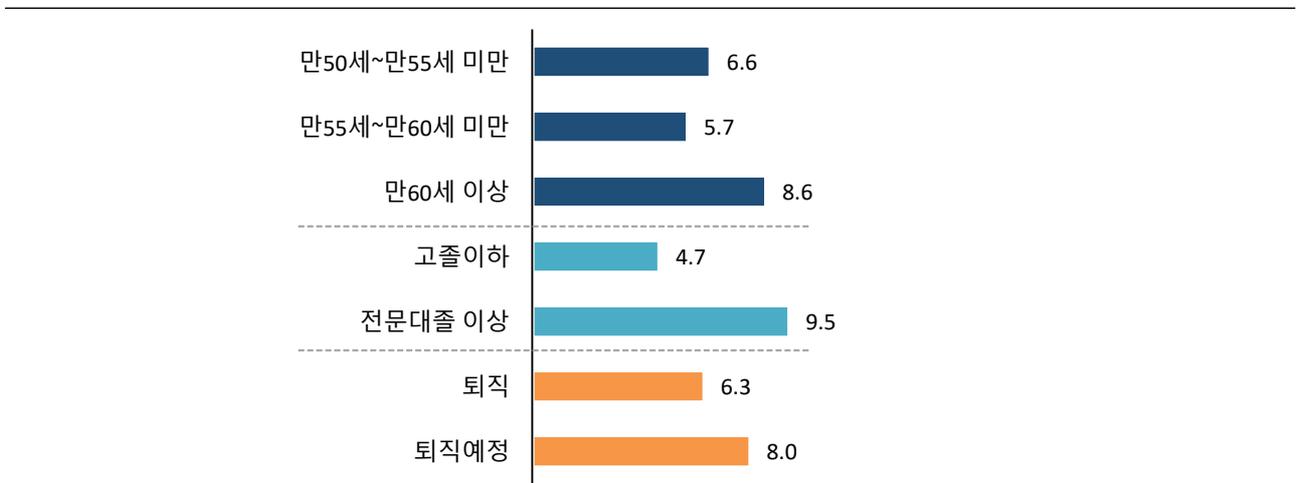
5. 직업교육훈련

5.1.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

-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5~8% 내외로 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⁵⁾
- 퇴직자 비중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8.6%가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훈련 참여 비중이 높은 편
- 퇴직한 경우보다 퇴직 예정인 경우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중이 높았음

[그림2-26] 재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

(단위: %)



〈표2-50〉 재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

(단위: 명, %)

		응답자수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 체]		553	7.1	92.9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6.6	93.4
	만55세~만60세 미만	210	5.7	94.3
	만60세 이상	221	8.6	91.4
퇴직	퇴직	316	6.3	93.7
	퇴직예정	237	8.0	92.0
지역	행복도시	312	7.1	92.9
	행복도시 외	241	7.1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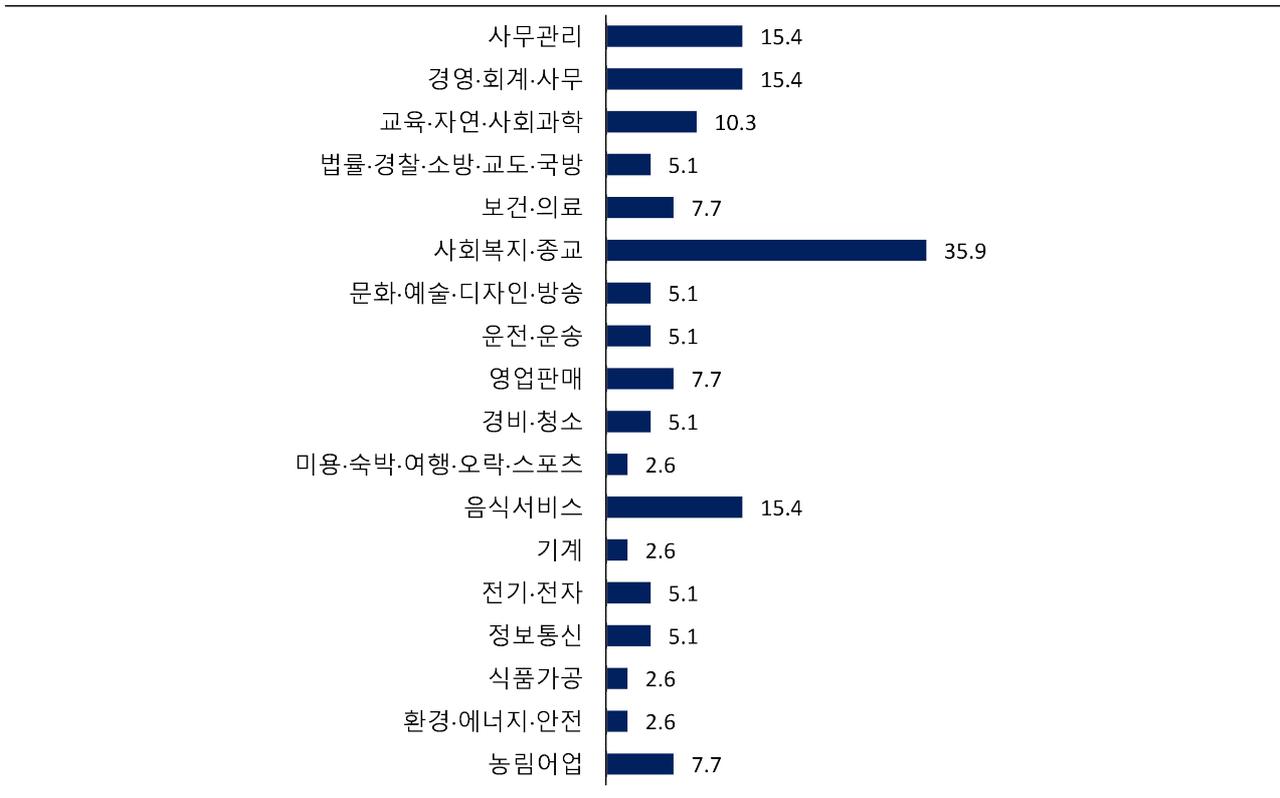
5)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만55~79세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비중은 12.9%임

5.2.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교육 기관 구분

-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사회복지·종교 관련 분야(35.9%), 사무관리·경영·회계관리(15.4%), 음식서비스(15.4%) 등의 과정에 참여

[그림2-27] 직업교육훈련 분야(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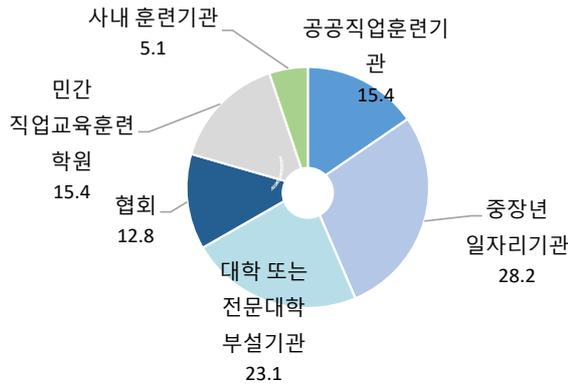
(단위: %)



-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중장년일자리기관(28.2%)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23.1%) 등에서 이수

[그림2-28] 훈련기관의 종류(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단위: %)



<표2-51> 직업교육훈련 받은 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단위: 명, %)

		응답자수	공공직업 훈련기관	중장년 일자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협회	민간 직업교육훈련 학원	사내 훈련기관
[전 체]		39	15.4	28.2	23.1	12.8	15.4	5.1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8	25.0	-	37.5	-	25.0	12.5
	만55세~만60세 미만	12	8.3	25.0	25.0	16.7	16.7	8.3
	만60세 이상	19	15.8	42.1	15.8	15.8	10.5	-
퇴직	퇴직	20	15.0	55.0	15.0	5.0	10.0	-
	퇴직예정	19	15.8	-	31.6	21.1	21.1	10.5
지역	행복도시	22	4.5	31.8	27.3	13.6	13.6	9.1
	행복도시 외	17	29.4	23.5	17.6	11.8	17.6	-

5.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소재 지역

- 직업훈련기관은 주로 세종시 및 대전에 위치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퇴직자가 많은 만60세 이상 중 84.2%가 세종시에 위치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반면, 그 외 연령대는 세종 외 지역에서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2-52〉 훈련기관이 위치한 지역(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단위: 명, %)

		응답자수	세종	대전	충남	충북	기타
[전 체]		39	66.7	25.6	2.6	2.6	2.6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8	62.5	25.0	-	12.5	-
	만55세~만60세 미만	12	41.7	50.0	8.3	-	-
	만60세 이상	19	84.2	10.5	-	-	5.3
퇴직	퇴직	20	65.0	25.0	5.0	-	5.0
	퇴직예정	19	68.4	26.3	-	5.3	-
지역	행복도시	22	59.1	31.8	-	4.5	4.5
	행복도시 외	17	76.5	17.6	5.9	-	-

-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중 세종 외 지역의 훈련기관을 이용한 응답자들은 세종지역 외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주된 이유로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없기 때문(53.8%)인 것으로 응답함

〈표2-53〉 세종 외 지역 훈련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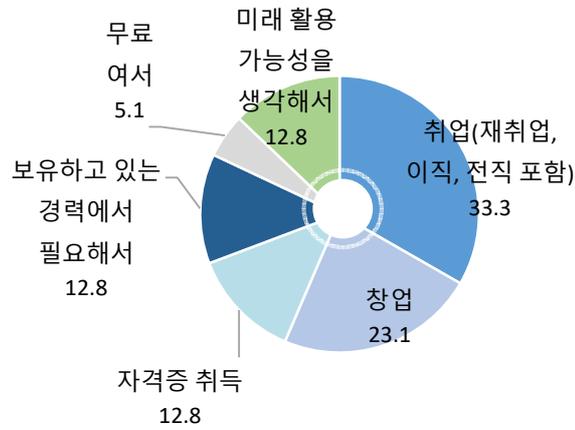
		응답자수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훈련기관이 없어서	훈련장비 및 훈련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훈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훈련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기타
[전 체]		13	53.8	15.4	7.7	7.7	15.4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3	33.3	33.3	-	-	33.3
	만55세~만60세 미만	7	57.1	14.3	14.3	14.3	-
	만60세 이상	3	66.7	-	-	-	33.3

5.4.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

- 취업(33.3%), 창업(23.1%)을 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였으며,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위해 참여한 경우도 12.8%
- 연령별로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목적에 차이를 보이는데, 만50~55세의 경우 창업을 위해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만55~60세는 기존 경력의 개발을 위해, 60세 이상은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2-29] 직업교육훈련 참여 이유-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단위: %)



〈표2-54〉 직업교육훈련 참여 이유

(단위: 명, %)

		응답자수	취업(재취업, 이직, 전직 포함)	창업	자격증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력에서 필요해서	훈련비가 무료여서	미래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서
[전 체]		39	33.3	23.1	12.8	12.8	5.1	12.8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8	25.0	37.5	-	-	12.5	25.0
	만55세~만60세 미만	12	25.0	8.3	16.7	33.3	8.3	8.3
	만60세 이상	19	42.1	26.3	15.8	5.3	-	10.5
퇴직	퇴직	20	35.0	20.0	10.0	15.0	10.0	10.0
	퇴직예정	19	31.6	26.3	15.8	10.5	-	15.8
지역	행복도시	22	36.4	4.5	18.2	9.1	9.1	22.7
	행복도시 외	17	29.4	47.1	5.9	17.6	-	-

5.5.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직업교육훈련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훈련내용과 직무의 연관성, 참여 기회의 확대, 프로그램의 다양화 부분임

[그림2-30] 직업교육훈련 개선 필요 사항(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단위: %)



<표2-55> 직업교육훈련 개선 필요사항(직업교육훈련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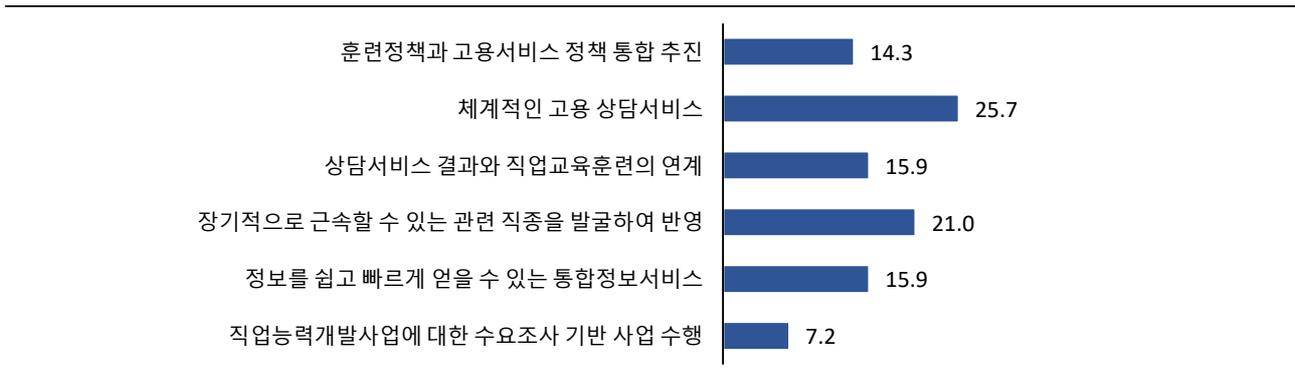
(단위: 명, %)

	전체	연령			퇴직		지역	
		만50세~ 만55세 미만	만55세~ 만60세 미만	만60세 이상	퇴직	퇴직 예정	행복 도시	행복 도시 외
응답자수	39	8	12	19	20	19	22	17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직무와의 연관성 강화	35.9	25	33.3	42.1	40	31.6	40.9	29.4
참여 기회의 확대(요일, 시간 등)	33.3	50	25	31.6	20	47.4	27.3	41.2
직업교육훈련 시실험, 실습 강화	23.1	25	41.7	10.5	25	21.1	18.2	29.4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확대	20.5	25	16.7	21.1	15	26.3	18.2	23.5
직업교육훈련비지원 확대	23.1	12.5	25	26.3	30	15.8	22.7	23.5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33.3	50	33.3	26.3	35	31.6	31.8	35.3
직업교육훈련 홍보 확대	5.1	0	0	10.5	10	0	9.1	0
직업교육훈련 후 취업 연계 정보 제공	25.6	12.5	25	31.6	25	26.3	31.8	17.6

-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참여자의 경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용 상담서비스,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과정에 반영하는 것 등으로 조사됨

[그림2-31]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표2-56〉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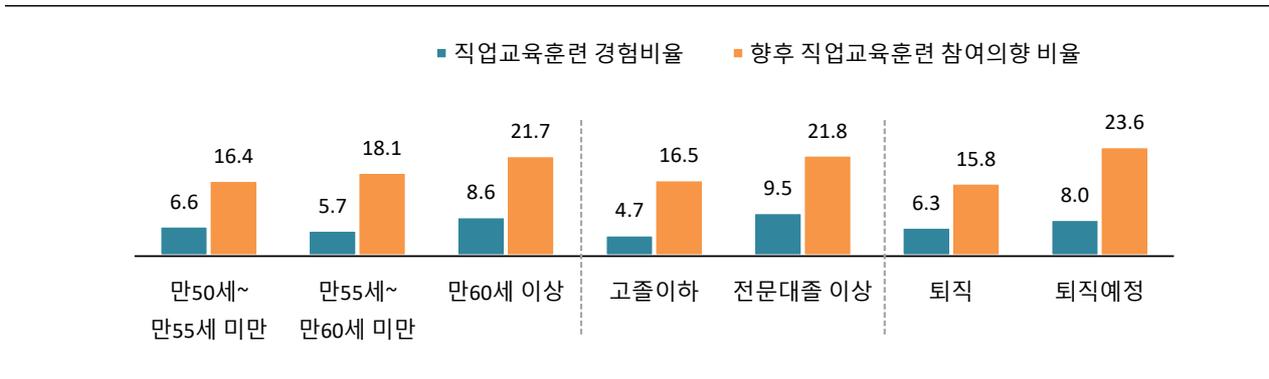
	전체	연령			퇴직		지역	
		만50세~ 만55세 미만	만55세~ 만60세 미만	만60세 이상	퇴직	퇴직 예정	행복 도시	행복 도시 외
응답자수	553	122	210	221	316	237	312	241
훈련정책 고용서비스 정책 통합 추진	14.3	13.9	11	17.6	15.5	12.7	16.3	11.6
개개인의 특성, 경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 상담서비스	25.7	23.8	28.1	24.4	27.5	23.2	26.3	24.9
상담서비스 결과와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15.9	21.3	11.9	16.7	13.9	18.6	13.8	18.7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관련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에 반영	21	17.2	24.3	19.9	20.6	21.5	21.2	20.7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합정보서비스	15.9	17.2	18.6	12.7	15.2	16.9	15.4	16.6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반 사업 수행	7.2	6.6	6.2	8.6	7.3	7.2	7.1	7.5

5.6. 향후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 향후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만 60세 이상 중에서는 21.7%로 퇴직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겠다는 비율도 증가

[그림2-32] 향후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단위: %)



<표2-57> 향후 재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단위: 명, %)

		응답자수	예	아니오
[전 체]		553	19.2	80.8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16.4	83.6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8.1	81.9
	만60세 이상	221	21.7	78.3
퇴직	퇴직	316	15.8	84.2
	퇴직예정	237	23.6	76.4
지역	행복도시	312	23.4	76.6
	행복도시 외	241	13.7	86.3

-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4.6%), 훈련기관까지의 접근성이 낮아서(15.7%), 훈련과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15.0%) 등의 이유로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

[그림2-33]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단위: %)



<표2-58> 재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전체	연령			퇴직		지역	
		만50세~ 만55세 미만	만55세~ 만60세 미만	만60세 이상	퇴직	퇴직 예정	행복 도시	행복 도시 외
응답자수	447	102	172	173	266	181	239	208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4.6	14.7	23.3	31.8	25.9	22.7	28.9	19.7
훈련과정 신청 경쟁이 심해서	6	6.9	9.3	2.3	5.6	6.6	7.1	4.8
훈련과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15	17.6	15.7	12.7	15.8	13.8	16.3	13.5
훈련장비 및 훈련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9.8	17.6	7	8.1	8.6	11.6	7.1	13
훈련비가 부담스러워서	6.5	14.7	4.1	4	6	7.2	3.8	9.6
훈련기관의 접근성이 낮아서	15.7	15.7	16.9	14.5	12.8	19.9	13.4	18.3
훈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6.9	5.9	7.6	6.9	7.9	5.5	6.7	7.2
훈련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7.2	2.9	7.6	9.2	7.9	6.1	8.4	5.8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훈련기관이 없어서	8.1	3.9	8.7	9.8	9.4	6.1	8.4	7.7
기타	0.2	-	-	0.6	-	0.6	-	0.5

5.7.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한 시기

- 신중년의 직업이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시기에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48.3%), 경력,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38.7%)과 같이 상시적으로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

〈표2-59〉 신중년의 직업이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적절 시기

(단위: 명, %)

		응답자수	관리자(부장, 팀장) 승진 전	본인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퇴직 직전	경력,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
[전 체]		553	1.1	48.3	11.9	38.7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2.5	36.9	20.5	40.2
	만55세~만60세 미만	210	1.0	53.8	11.9	33.3
	만60세 이상	221	0.5	49.3	7.2	43.0
퇴직	퇴직	316	316	-	44.9	7.3
	퇴직예정	237	237	2.5	52.7	18.1
지역	행복도시	312	0.6	56.1	8.3	34.9
	행복도시 외	241	1.7	38.2	16.6	43.6

5.8.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이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⁶⁾

- 신중년의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이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 기업에서 일정비율의 중장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 중장년층의 직업기초 능력, 직무 기술과 관련된 역량 조사 및 진단의 순으로 응답
- 퇴직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만50~55세의 경우 기업에서 일정 비율의 중장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만55세 이상의 경우 중장년층의 직업기초 능력, 직무 기술과 관련된 역량 조사 및 진단에 대한 욕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6)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이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됨(1=전혀 필요하지 않다, 5=매우 필요하다)

〈표2-60〉 정부부처 간 연계 시스템 마련

(단위: 명, %)

		응답자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4	16.5	31.1	46.8	5.2	3.40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	37.7	27.0	27.9	7.4	3.05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13.3	32.4	49.5	4.3	3.44
	만60세 이상	221	0.5	7.7	32.1	54.8	5.0	3.56
퇴직	퇴직	316	-	11.4	32.9	51.9	3.8	3.48
	퇴직예정	237	0.8	23.2	28.7	40.1	7.2	3.30
지역	행복도시	312	0.3	9.9	31.1	51.6	7.1	3.55
	행복도시 외	241	0.4	24.9	31.1	40.7	2.9	3.21

〈표2-61〉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단위: 명, %)

		응답자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4	6.5	41.2	36.9	15.0	3.60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	9.8	48.4	32.0	9.8	3.42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7.1	42.4	37.6	12.4	3.54
	만60세 이상	221	0.5	4.1	36.2	38.9	20.4	3.75
퇴직	퇴직	316	0.3	3.2	39.2	40.2	17.1	3.71
	퇴직예정	237	0.4	11.0	43.9	32.5	12.2	3.45
지역	행복도시	312	0.6	3.5	39.4	38.5	17.9	3.70
	행복도시 외	241	-	10.4	43.6	34.9	11.2	3.47

〈표2-62〉 중장년층의 직업기초능력, 직무기술과 관련된 역량 조사 및 진단

(단위: 명, %)

		응답자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4	6.0	31.1	44.5	18.1	3.74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	6.6	42.6	36.1	14.8	3.59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6.7	28.6	44.3	20.0	3.77
	만60세 이상	221	0.5	5.0	27.1	49.3	18.1	3.80
퇴직	퇴직	316	0.3	6.6	27.8	46.8	18.4	3.76
	퇴직예정	237	0.4	5.1	35.4	41.4	17.7	3.71
지역	행복도시	312	0.6	6.1	25.0	46.5	21.8	3.83
	행복도시 외	241	-	5.8	39.0	41.9	13.3	3.63

〈표2-63〉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단위: 명, %)

		응답자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2	6.3	28.8	52.3	12.5	3.71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	8.2	28.7	50.8	12.3	3.67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8.1	30.0	49.5	11.9	3.64
	만60세 이상	221	-	3.6	27.6	55.7	13.1	3.78
퇴직	퇴직	316	-	6.3	28.5	51.6	13.6	3.72
	퇴직예정	237	0.4	6.3	29.1	53.2	11.0	3.68
지역	행복도시	312	-	7.7	26.9	51.0	14.4	3.72
	행복도시 외	241	0.4	4.6	31.1	53.9	10.0	3.68

〈표2-64〉 기업에서 일정비율의 중장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의무화

(단위: 명, %)

		응답자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2	5.4	30.2	51.4	12.8	3.71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	5.7	22.1	58.2	13.9	3.80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3.3	33.3	50.5	12.4	3.71
	만60세 이상	221	-	7.2	31.7	48.4	12.7	3.67
퇴직	퇴직	316	-	5.7	28.8	50.9	14.6	3.74
	퇴직예정	237	0.4	5.1	32.1	51.9	10.5	3.67
지역	행복도시	312	0.3	5.8	29.5	49.7	14.7	3.73
	행복도시 외	241	-	5.0	31.1	53.5	10.4	3.69

〈표2-65〉 중장년층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단위: 명, %)

		응답자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4	6.5	31.6	43.9	17.5	3.72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8.2	31.1	38.5	21.3	3.71
	만55세~만60세 미만	210	0.5	7.1	30.0	46.7	15.7	3.70
	만60세 이상	221	-	5.0	33.5	44.3	17.2	3.74
퇴직	퇴직	316	-	5.1	32.0	45.3	17.7	3.76
	퇴직예정	237	0.8	8.4	31.2	42.2	17.3	3.67
지역	행복도시	312	-	6.1	28.2	45.5	20.2	3.80
	행복도시 외	241	0.8	7.1	36.1	41.9	14.1	3.61

〈표2-66〉 중장년층의 직업이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단위: 명, %)

		응답자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5점기준)
[전 체]		553	0.2	7.6	31.3	52.4	8.5	3.61
연령	만50세~만55세 미만	122	0.8	18.0	26.2	39.3	15.6	3.51
	만55세~만60세 미만	210	-	5.2	36.2	53.3	5.2	3.59
	만60세 이상	221	-	4.1	29.4	58.8	7.7	3.70
퇴직	퇴직	316	-	6.0	30.1	55.7	8.2	3.66
	퇴직예정	237	0.4	9.7	32.9	48.1	8.9	3.55
지역	행복도시	312	-	3.8	31.4	56.7	8.0	3.69
	행복도시 외	241	0.4	12.4	31.1	46.9	9.1	3.52

제3장 조사결과(정성)



제3장 조사결과(정성)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세종지역 신중년(만50~만69세)
- (조사방법)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 (조사내용)
 -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 신중년의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
 - 신중년에게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내용
 - 세종시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수강 어려움
 -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정부 및 지자체)

2. 조사결과

질문	조사결과
E1.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퇴직 후 자기의 직무를 연관하여 재취업 등 창업에 도전하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은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지며, 본인은 IT 쪽의 일을 하였지만, 60세가 넘어서는 재취업이 너무 힘들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함. 가전(에어컨, 세탁기) 등 세척 기술과 같은 단순한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단순한 실적위주의 “00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홍보성 정책을 지양하고 일회성,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50-69세라고 그래도 경력, 신체 건강 등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 기능이(이전에 해온 일과 연계된) 필요한 일과 기술(이전에 해온일과 상관없이 일정시간 들여 배우면 ‘벌이’ 가능한) 혹은 단순하더라도 노무제공으로 일자리 얻을 수 있는 일 등 구분해서 교육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퇴직 후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재능 습득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적극 필요함 • 점점 변해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법적 근로 기간이 지난 퇴직자들의 일할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무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다양하게 발굴되면 좋겠음 •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 정책은 필요하지만 신중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짐

질문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보이며,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이나 경력 일자리 사업이나 시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공헌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활동비가 너무 작다보니 신중년들의(경력있고 수준있는 신중년)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것 같음
<p>E2. 신중년의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시대 은퇴를 앞두고 은퇴 직후의 삶을 위해 이후의 삶이 보다 유익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남을 통해(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보공유로 그 삶이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에 반드시 직업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배움을 통해 도전받고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사료됨(잘먹고 잘살고 잘 노는 법이 인생설계에 꼭 필요) • 고령화 사회의 적응을 위해서라도 신중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나 창업교육 등 국가적 관심이 요구됨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비정규직, 프리랜서 포함) 일자리가 필요하고 생각함. 퇴직자의 경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든 많은 기회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생활에 더욱 활력소가 되어 일의 즐거움과 보람이 더해지는 직업교육이 많았으면 좋겠음 • 장시간의 일자리 훈련보다 노년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자리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자리에 교육훈련이 필요함 • 제2의 직업을 찾는 신중년에게 직업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신중년 센터에서 배운 가전제품 분해 교육처럼 실생활에 유용한 실기 위주 교육(정리사, 전기기술자 교육) 등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음 • 재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산업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재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함 •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업분야가 다양하고 원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몸담은 신중년을 해당 분야나 다른 분야에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함으로 부족한 인력과 경험을 채우고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무조건적인 직업교육훈련이 아닌 지자체의 신중년 채용 가능한 업체의 수요조사 후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직종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서 배워야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고 의욕도 있으므로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함 •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중년 직업교육훈련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일을 통해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함 • 과거의 직업을 벗어나 새로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업 교육이 필요함 • 수명 연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개인의 자존감 성취를 위해서 필요함 • 나이가 들어도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원하는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우울증 증가 등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을 대비하여 노인들 일자리가 많이 생성될 필요가 있음

질문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전직장 경력을 다 살리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p>E3. 신중년에게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경제 지식(경매, 급매), 소통과 공감에 필요한 PPT활용, 정보의 다양화에 필요한(기계 다루는 법) 폰 활용, 미술치료 분야(심리상담, 인격과 인성의 적합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기술교육만이 제2의 인생을 꾸려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지게차 운전, 가전 세척, 중장비 교육, 전기 기술 관리 등 간단한 기술 교육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함 • 신중년 적합직무 상세라는 내용을 보면 주로 현직들이 활동할 수 밖에 없는 00전문가 등 비현실적 내용들만 담고 있음. 일부 신중년들은 적합한 기술들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 재취업 등이 가능하지만, 일반적 신중년들에겐 접근이 쉽고 용이한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없는 직업에 대한 교육 훈련이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이 될 것 같음 • '서울 50+ 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데, 일, 교육, 활동 등 여러 분야 나누어 많은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음. 벤치마킹을 통해 세종시에서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교육을 시행 되면 좋겠음 • 시민불편 모니터링 관련 양성 및 고용, 갈등관리 강사 양성(디지털세대와 기성세대 등), 정리관리사 양성 과정(맞벌이 세대의 여가 찾아주기), 자전거 수리기능사 양성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변해가는 속도가 빨라 젊은 사람들과의 격차를 많이 느끼고 있어, 스마트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IT과정, AI과정, 빅데이터 과정을 기초 단계부터 훈련이 필요하며, 봉제, 세탁, 도배 기술 등 실용적 기술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세종시는 요양보호사 외에는 hrd에서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이 거의 없으며, 한가람교육센터와 한컴아카데미의 데이터 분석과정도 기초과정은 없고 중급 이상부터라서 기초 훈련없이 신중년이 배우기는 어려움 • 재취업에 대한 수요를 찾아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시간제 직무를 다양화하여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함 • 실습,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창업, 재취업, 창직 이 세가지를 포함하고 기업체, 학교 등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인프라가 시급하게 필요함 • 신중년이 재취업 가능한 업체 수요조사 후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꼭 필요한 실무 기술이나 신중년이 취업할 때 꼭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취업과 바로 연계되는 교육이 필요함 • IT 관련 내용, 사회복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함 • 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함 •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개발해서 5~1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세종시의 경우 공원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훈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질문	조사결과
<p>E4. 세종시에서의 직업교육훈련수강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상황과 조건에 맞춤이 어려움(인식 부족) • 자기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기관 부족으로 교육을 수강하기에 어려움 • 세종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대전 등 인근지역으로 수강을 하여야 함 • 훈련 내용의 다양성, 횟수 등 직업교육훈련 자체가 너무 적음 • 연령제한 •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없고 내일배움카드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 노동부 hrd 검색 기능에 대한 불편함(지역으로 체크해도 잘 안나옴) 크기 때문에, hrd에서 항상 로그인된 상태 접속유지 기능, 실시간 검색 가능 등 hrd 프로그램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세종시 직업훈련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함(요양보호사가 대다수이고 다른 훈련과정 없음) • 다양한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미흡하며, 직업훈련기관의 자격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중되어 있어 과도한 교육훈련비가 부담됨 • 인기가 있는 훈련의 경우 인원(지원자)이 많아서 기회를 얻지 못함 • 인원확대, 기수를 나눠서 진행하여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 •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술 학원 등의 인프라가 부족함 • 디지털 대비이스 작동 마속으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직업교육 훈련을 받기가 어려움 • 훈련기관 부족문제로 수강이 어려움 • 직업교육훈련기관 자체가 거의 없어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교육을 받고 싶어도 수강하지 못 하였음 • 관심 분야, 하고싶은 분야, 인기있는 분야가 적게 개설되어 수강이 어려움 • 원하는 분야가 많지 않고, 개설되더라도 수강신청 인원의 숫자가 너무 적음 • 관련 업무를 어디(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지 알기 어려움 • 관련 정보에 대해 무지함 • 직업훈련 강의시간 및 장소 부족문제로 수강이 어려움 • 정보 부족하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 경쟁률이 높음
<p>E5. 신중년의 제2의 인생살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정부 및 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의 심화 학습 과정과 연계 활동의 중요함이 절실함(심리적상태, 건강상태를 위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 • 신중년 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아 보니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어, 교육 수료 이후에 창업, 취업 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며, 세종시 특성상 청년 및 공무원 위주로 대기업 등 기업유치 노력이 필요함 • 일대일 매칭으로 자금지원 등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확대 정책 등 • 직업교육훈련 자체가 너무 적어 확대가 필요함 • 배우고 나서 활용할 곳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료이후 연계 정책이 필요함 • 신중년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제2의 직업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무료 지원이 필요함 • 1일 4시간~6시간 일자리 창출, 퇴직 후 세대들의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교육을 받더라도 기관에 취업은 쉽지 않고 창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필요

질문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 stop infra 또는 platform이 필요하며, 워크넷처럼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함 • 자자체가 아닌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 교육 P/G는 정부에서 매뉴얼로 작성하여 배포를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들을 정리하여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제2의 인생설계 P/G가 운영 되었으면 좋겠음 • 신중년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훈련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함 • 교육비 지원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직업에 대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신중년이 도전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 필요 • 주민센터 등을 통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다양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신중년의 진로탐색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스스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가 필요한데 정보 접근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 • 거주지와 거리 등 상세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적성과 취미에 맞는 정책 발굴이 필요함 • 신중년들이 원하는 직무를 발굴하여 필요한 곳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 마련하고 시나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알림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다양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 신중년 진로탐색을 하기 전 필요한 장비 및 자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청이나 복컴에서 공지 필요 •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진로탐색을 제공하고 현장 전문가의 강의를 필요함

제4장 결론



제4장 결 론

1. 조사결과 요약

- 세종지역 신중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세종지역 50세 이상 신중년의 구직건수, 취업건수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건수도 최근 3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응답자들은 주된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28.0%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을, 20.6%는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을 수행
 - 남성 응답자의 14.2%는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을 수행한데 반해,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31.3%가 경영·사무·금융·보험 직무를 수행
-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험을 가진 응답자 비중은 매우 낮음
 - 퇴직자 중 6.6%가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험이 있으며, 퇴직상태에서->취·창업인 경우는 76.2%, 퇴직 전 고용상태에서 취·창업인 경우는 14.3%임
- 향후 재취업 또는 창업시 주된 직장에서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응답자는 38.9%
 - 현재 퇴직 예정인 만50~55세 미만이 그 이상 연령대보다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모두 세종지역 내에서의 재취창업 희망 비중이 높으며, 주된 이유는 가족 또는 지인이 거주하거나 인근지역과의 편리한 인프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재취창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 및 노후 준비의 비중이 높았으나, 자기계발, 여가 시간 활용, 사회공헌 등의 이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재취창업을 희망하는 산업은 퇴직 전 주된 일자리와 차이를 보임

- 퇴직 전 주된 일자리는 제조업(16.4%), 도소매업(14.1%),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9.6%) 등이었으나, 재취창업을 희망하는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5.4%), 도소매업(14.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8%) 등의 분야를 희망
-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데 있어 직무능력이나 정보수집, 일자리 부족이 얼마나 장애가 될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신중년에게 적합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의 부족 > 재취업 관련 정보수집의 어려움 > 이력서 작성, 면접 등 재취업 기술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장애물로 평가되었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각각의 사항이 장애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나, 육아, 가사 등과의 병행, 일자리 부족, 정보수집의 어려움, 재취업 기술의 부족 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일자리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인대상 일자리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접근 가능한 일자리가 많다는 점에서 만 50~60세 미만 연령대에 대한 일자리·정보 제공이 요구됨
- 재취창업을 위해 채용정보 수집 > 관련 기관 방문 및 상담 >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 재취업을 위한 자금 마련 순으로 준비
-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구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자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의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 일자리 발굴 및 창출 > 재취업 지원기관의 기능 확대 순의 지원을 요구
-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는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창출 > 직업설계 및 취업 상담지원 > 신중년 재취업 지원기관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진학,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30% 이상이 신중년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7.1%로 낮은 수준이며, 퇴직 예정자의 직업교육 훈련 참여 비중이 1.7%p더 높음
 -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세종시와 대전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목적 상이함
 - 만50~55세의 경우 창업을 위해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만55~60 세는 기존 경력의 개발을 위해, 60세 이상은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함
-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직무와의 연관성 강화, 참여기회의 확대 (요일, 시간 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향후 재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은 19.2%였으며, 퇴직 시기가 가까워질 수록 직업교육훈련 참여 계획이 높음

2. 시사점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세종지역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들이 일부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요자인 신 중년들은 다양한 훈련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실제로, 2021년 세종지역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양성훈련을 직종별(KECO중분류)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직', '음식 서비스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건설·채굴직', '식품 가공·생산직' 분야에서 훈련이 실시됨

〈표4-1〉 세종지역 직종별 양성훈련 현황(KECO중분류)

(단위: 명)

KECO(중분류)	2020			2021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자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자
[전 체]	438	406	189	1,089	1,040	424
30 보건·의료직	98	85	45	101	89	69
53 음식 서비스직	65	61	20	175	168	63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90	182	92	652	643	236
70 건설·채굴직	69	63	28	64	51	23
87 식품 가공·생산직	16	15	4	97	89	33

- 향상훈련은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586명),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489명), '41 예술·디자인·방송직'(454명) 순으로 많게 나타남

〈표4-2〉 직종별 향상훈련 현황(KECO중분류)

(단위: 명)

KECO(중분류)	2020		2021	
	실시인원	수료인원	실시인원	수료인원
[전 체]	1,489	1,347	2,945	2,729
02 경영·행정·사무직	191	182	294	274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2	22	24	24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1	96	210	188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5	213	489	436
23 사회복지·종교직	0	0	20	20
30 보건·의료직	1	1	7	7
41 예술·디자인·방송직	391	317	454	415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0	0	155	128
53 음식 서비스직	60	50	171	159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94	292	586	580
61 영업·판매직	3	3	0	0
70 건설·채굴직	0	0	78	73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77	74	71	65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0	0	2	2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45	43	40	36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	0	104	104
87 식품 가공·생산직	16	15	131	121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3	39	109	97

- 따라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세종지역 내 신중년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중년의 수요에 기반한 세종지역 내 교육훈련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①경력설계 상담 → ②직업교육훈련 → ③직종발굴 및 취업 연계

-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지역 신중년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
-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이유로 향후 직업교육훈련 참여 계획 또한 낮음

- 따라서, ①개개인의 특성 및 경력 등에 기반한 체계적인 경력설계 상담이 전제되고, ②이를 토대로 직업교육훈련이 연계되어야 하며, ③세종지역 맞춤형 신중년 직종 발굴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담, 직업교육훈련, 신중년 맞춤형 직종으로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함

□ 중장년 맞춤형 기초 디지털·신기술 직업교육훈련 확대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동시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직무전환 및 경력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됨
- 따라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직종 발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디지털·신기술을 수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훈련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과정 편성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현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부록] 설문지



[부록]

2022년 세종지역 신중년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2022년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응답은 세종지역 신중년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하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설문 후 답례품 증정용, 응답 자료 확인용
-----------------------------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상품 발송 완료시까지(상품 발송 완료 후 파기)

③ 동의 거부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례품 발송이 어려우니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답례품은 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A7. 귀하는 퇴직 전 주된 직장 혹은 현재 직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①	②	③	④	⑤
4) 일하는 시간(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①	②	③	④	⑤
5) 인사체계(승진제도 등)	①	②	③	④	⑤
6) 복리후생제도(복지포인트, 성과급 등 부가급부)	①	②	③	④	⑤
7) 인간관계 및 조직문화	①	②	③	④	⑤
8)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의 일치성	①	②	③	④	⑤

A8. 귀하가 수행한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입니까)?

① KECO(대분류)	
② KECO(중분류)	
③ KECO(소분류)	

2번 문항에서 <① 퇴직> 응답자 → B1번 문항으로

2번 문항에서 <② 퇴직 예정(재직 중)> 응답자 → B5번 문항으로

B. 퇴직 경험 및 현재 상황

B1. 귀하께서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B2. 귀하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직업이동】

①고용상태, ②실업상태, ③직업교육훈련상태, ④가사육아전담상태, ⑤ 퇴직 등의 상태에서 일을 하는 상태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창업을 포함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상태를 의미

- ① 예 → B3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B6번 문항으로

B3.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경험한 '직업이동' 경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고용상태 → 고용상태로 이동 ② 퇴직상태 → 고용상태로 이동
 ③ 교육훈련상태 → 고용상태로 이동 ④ 가사육아전담상태 → 고용상태로 이동
 ⑤ 기타()

B4. 귀하께서는 퇴직 전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이동하셨습니다가?

- ① 예 ② 아니오

2번 문항에서 <① 퇴직> 응답자 → B6번 문항으로

B5. 귀하께서는 퇴직 시점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B6. 귀하께서는 재취업(창업)을 원하는 경우, 주된 직장에서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7. 귀하께서 재취업(창업)을 한다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쌓은 경력, 역량 등이 어느 정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된 직장에서의 거의 똑같이 유용할 것이다 ② 부분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 ③ 거의 쓸모 없을 것이다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B8.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재취업(창업)을 희망하십니까?

- ① 세종 ② 대전 ③ 충남 ④ 충북 ⑤ 서울 ⑥ 경기 ⑦ 기타()

B9. B8번 문항의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거주지(고향) ② 기존 경력 관련 취업처가 많아서
- ③ 높은 연봉 ④ 편리한 인프라(교통, 주거 등)
- ⑤ 가족 또는 지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⑥ 경제적 여건(낮은 물가, 저렴한 주택비용 등)
- ⑦ 기타()

B10. 귀하께서 재취업(창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순위까지 응답

- ① 생계비 마련 ② 자녀교육 ③ 자기계발 ④ 노후준비
- ⑤ 사회공헌 ⑥ 여가시간 활용 ⑦ 재산증식 ⑧ 기타()

B11. 귀하께서는 어떤 산업에서 재취업(창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① KSIC(대분류)	
② KSIC(중분류)	

B12. 귀하께서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원하십니까?

① KECO(대분류)	
② KECO(중분류)	
③ KECO(소분류)	

C5. 세종 외 지역의 훈련기관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훈련기관이 없어서
- ② 훈련과정 신청 경쟁이 심해서
- ③ 훈련과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④ 훈련장비 및 훈련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⑤ 훈련비 부담
- ⑥ 훈련기관의 접근성이 낮아서(거리가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 ⑦ 훈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 ⑧ 훈련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 기타()

C6. 귀하께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재취업, 이직, 전직 포함)
- ② 창업
- ③ 자격증 취득
- ④ 보유하고 있는 경력에서 필요해서
- ⑤ 훈련비가 무료여서
- ⑥ 미래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서
- ⑦ 기타()

C7.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	--	-----	--

- ①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직무와의 연관성 강화
- ② 참여기회의 확대(요일, 시간 등)
- ③ 직업교육훈련 시 실험, 실습 강화
- ④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확대
- ⑤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확대
- ⑥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⑦ 직업교육훈련 홍보 확대
- ⑧ 직업교육훈련 후 취업 연계 정보 제공
- ⑨ 기타()

C8. 세종지역의 신중년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훈련정책과 고용서비스 정책 통합 추진
- ② 개개인의 특성, 경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 상담서비스
- ③ 상담서비스 결과와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 ④ 신중년이 진입하여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관련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에 반영
- ⑤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서비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통합정보서비스
- ⑥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반 사업 수행
- ⑦ 기타()

C9. 귀하께서는 향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C10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C11번 문항으로

C10. 귀하께서는 재취업을 위해 향후 어느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NCS(대분류)	
② NCS(중분류)	
③ NCS(소분류)	
④ NCS(세분류)	

C11. 재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② 훈련과정 신청 경쟁이 심해서
- ③ 훈련과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④ 훈련장비 및 훈련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⑤ 훈련비가 부담스러워서
- ⑥ 훈련기관의 접근성이 낮아서(거리가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 ⑦ 훈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 ⑧ 훈련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 ⑨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훈련기관이 없어서
- ⑩ 기타()

C12. 귀하께서는 신중년(중장년)의 직업이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언제'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리자(부장, 팀장) 승진 전
- ② 본인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 ③ 퇴직 직전
- ④ 경력,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
- ⑤ 기타()

C13. 신중년(중장년)의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이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항목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C13-1	정부부처 간 연계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C13-2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①	②	③	④	⑤
C13-3	중장년층의 직업기초능력, 직무기술과 관련된 역량 조사 및 진단	①	②	③	④	⑤
C13-4	중장년층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①	②	③	④	⑤
C13-5	기업에서 일정비율의 중장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C13-6	중장년층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①	②	③	④	⑤
C13-7	중장년층의 직업이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①	②	③	④	⑤

D. 인적사항

구 분		응답 문항
D1. 거주지		① 조치원읍 ② 연기면 ③ 연동면 ④ 부강면 ⑤ 금남면
		⑥ 장군면 ⑦ 연서면 ⑧ 전의면 ⑨ 전동면 ⑩ 소정면
		⑪ 한솔동 ⑫ 새롬동 ⑬ 지정동 ⑭ 도담동 ⑮ 어진동
		⑯ 해밀동 ⑰ 아람동 ⑱ 종촌동 ⑲ 고운동 ⑳ 소담동
		㉑ 반곡동 ㉒ 집현동 ㉓ 보람동 ㉔ 대평동 ㉕ 기타()
D2. 성별		① 남 ② 여
D3. 나이		① 만50세~만55세 미만 ② 만55세~만60세 미만
		③ 만60세~만65세 미만 ④ 만65세~만70세 미만
D4. 교육정도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4년~6년제)
		④ 대학원(석사) ⑤ 대학원(박사)
D5. 전공	D4-1. 고졸	① 인문계열 ② 예체능계열 ③ 상업·농업·공업·수산계열
	D4-2. 전문대졸 이상	① 인문사회계열 ② 예체능계열 ③ 교육(사범)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계열
D6.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사별
D7. 월평균 가구 총소득(세전)		① 250만원 미만 ② 250만원~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900만원 미만 ⑨ 900만원~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근로,이자,임대,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D8. 가구 생계의 주된 담당		① 본인 ② 배우자(기혼인 경우만) ③ 부모 ④ 자녀 ⑤ 기타()
D9. 가구원 수(본인포함)		총 _____명
D10. 자녀수		① _____명 ② 없음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발행일 2022년 12월
연구책임자 박 인(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공동연구원 주연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관)
이창준(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우승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임연구관)
남승목(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민병훈(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김유미(케이스태트 부장)
발행기관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003 4층 404호
전화: 044)414-9264
홈페이지: www.sjhrd.or.kr
